

좌담회 녹취록

제1분과 좌담회 제1부

4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

5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

제1분과 좌담회 제2부

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

새로운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위한 좌담회

제1분과 좌담회 제1부

일시: 2004년 6월 12일 토요일 09:00~18:00

장소: 江陵 現代鏡浦臺호텔 4층 사파이어홀

4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

김태식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번 회의 기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마다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중략)

김태식 : 4세기 한일관계 좌담회는 손님인 하마다 선생님께서 먼저 10분 발제를 해주 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요, 5세기 때는 반대로, 노중국 선생님이 먼저 발제하 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濱田 : 양보하겠습니다.

김태식 : 예, 그래도 하마다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濱田 : 김태식 선생님의 자세한 원고가 있으니까, 양보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제가 처음이라는 것은 기억이 없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김태식 선생님은 아주 상세하게 메모를 하셨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4세기의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하는 큰 테마라서, 순서대로 하려면 김태식 선생님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후에 전체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이와 같은 진행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植 위원의 發題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發題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과에서 한국측 세 분하고, 일본측 세 분, 여섯 사람이 만나서 2년간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일본 연구자,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은 제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좀 더 오래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제가 맡은 4세기 한일관계사 연구 진전을 위해서 상호 인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좌담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는, 神功紀 49년조의 7국 평정기사의 이해, 둘째는 廣開土王陵碑文 所載 倭軍의 성격, 그리고 셋째는 4세기 한일관계의 기본 성격입니다.

첫째로, 神功紀 49년조의 7국 평정기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100%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단지 편년 또는 내용의 어느 하나, 일부만 부정하고 그 내용의 추세, 전반적인 추세는 믿으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군의 한반도 比自怱 등 加耶 7國 평정이라는 기사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神功紀 49년조에 이어지는 52년조의 七枝刀가 이 문제에 대한 傍證資料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각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49년조 7국 평정기사 뒤에 이어지는 백제의 南下에 의한 比利 등 4국의 항복 기사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지나친 견해에서는 이를 任那日本府의 駐屯軍으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아주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九州에 있는 백제계통 分國에서 故國을 위해서 단순히 동원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입장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고구려가 그 왜군의 존재로 인하여 왜가 백제나 신라를 臣民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을 내릴 정도로, 왜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남부를 왕래하면서 백제나 신라에 대한 강압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占領軍인가? 또는 한반도의 남부의 점령을 원하면서 아직은 이를 완수하지 못한 作戰中の 군대였는가? 아니면 백제나 가야와의 우호적 교류의 연장선 위에서 어떤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기대하여 희생적으로 도와주던 援軍이었을까? 제가 지금까지의 논지에서 정리

하기로는 하마다 선생님의 의견이 전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후자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적 성격이라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4세기의 모든 기록, 문헌기록 및 고고학적 자료들을 망라해 보았을 때, 4세기 한일관계의 기본 성격은 무엇일까? 그것은 왜가 우위에 있는 한일교류였을까? 또는 한반도가 우위에 있는 한일교류였을까? 만일 그렇다면, 한반도 우위의 교류였다면, 그 주체는 한반도의 어느 나라였을까? 혹은 그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어디까지나 대등한 상호관계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4세기의 한반도 정세와 일본열도의 내부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4세기의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한 세력이고, 신라와 가야는 기본적으로 소국연맹체이면서 중심 세력이 나타나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모색하던 세력입니다. 4세기 일본열도의 내부구조는 기본적으로 신라나 가야와 유사하되 그 연합의 규모는 그들보다 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세기와 5~6세기 한일관계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우호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진적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기탄없이 좌담회가 이루어졌으면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하마다 선생님.

濱田 : 저어, 이것은 기록 외 발언인데요, 좀 사전 확인입니다. 김태식 선생님의 문제 제기, 혹은 이어서 발표하실 노중국 선생님의 문제제기는 각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논문에서 다루실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좌담회 테마로서 6명의 선생님이 각각의 견해를 소개하는,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면 그 동안의 중간보고회에서 다루신 두 선생님의 거의 같은 과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6명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그, 두 선생님이 앞으로 정리하실 8월 제출의 논문에도 편입되거나, 혹은 편입되지 않거나 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종보고서에 실릴 두 선생님의 논문과 녹취를 한 좌담회 기록과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담회에서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김태식 선생님이 앞으로 집필하실 문제, 논문의 기둥이 될 서너 개의 문제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드리

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좌담회라고 하기보다 예정원과 비평회와 같은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좀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김태식 :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을 발표하고, 그동안 토론이 있었고, 그 내용이 아마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지난 번 중간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그 동안의 토론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이 상호간에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의 좌담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좌담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던 것이라 하더라도 좀 더 요약된 형식으로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주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의 좌담회는 형식상으로 볼 때도 일단 연구를 다 마치고 논문도 다 정리된 상태에서 쓴다고 상정이 되고 있고, 이번에 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의 좌담회를 통해서 어느 선생님도 논문을 크게 수정하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우리 여섯 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 이번 좌담회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濱田 :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최종보고서에는 지금의 시점에서, 즉 2004년 6월 시점에서 좌담회를 열었다는 것이 활동기록으로서 기록되니까, 이 시점에 있어서의 6명의 좌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 선생님의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까요, 아니면.

石井 : 두 분이 먼저 화제를 제공하신 후에.

濱田 위원의 發題

濱田 :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간단한 메모입니다. 저는, 4세기를 담당하는 것으로, 4세기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사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대학에서의 강의는 고대 일조관계사를 하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어떤 일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전했는지를 긴 시점으로 파악하자는 것이 강의 목적입니다. 이 공

동연구회의 성과를 어떻게 끌어낼까 하는 점도 의식하면서 강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일관계사의 어떤 부분은 전통적인 파악방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의 고대사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고조선, 혹은 기자조선, 위씨조선에서 시작해서 낙랑군, 현도군, 대방군의 문제부터 왜인의 등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의 김태식 선생님의 문제제기 가운데 하나, 《일본서기》의 신공황후기에 나오는 고대 한일관계사의 사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계됩니다. 그것은 우선, 전후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대 일조관계사를, 일한관계사를 생각한다는 연구 분야에서는 일단은 《일본서기》를 떠나서, 중국 사료, 혹은 금석문, 혹은 한국의 사료, 그러한 사료들을 통해서 고대 일본사는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지왜인전의 卑彌呼 문제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칠지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 방향, 혹은 광개토왕비문을 역시 과학적으로 탁본, 혹은 현지조사 등등을 껴서 연구하자는 방향, 그러한 것이 역시 《일본서기》를 떠나서 고대 일본사, 혹은 고대 일조·일한관계사를 생각하자는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고학의 풍부한 연구도 그 속에 있는데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고고학자가 아니라서, 그쪽부터의 고대한일관계사 재구축이라는 것은 충분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사료 중의 “樂浪海中倭人有”라는 부분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정치세계, 혹은 교류의 세계에서의 왜인의 등장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세기에 낙랑군이 二分되어, 남쪽에 또 하나 대방군이 생기는데, 왜인 중에 한반도에 있는 대방군에 나가는 왜인이 있다는, 그러한 적극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왜인과 가야 사람들, 당시 말로 얘기하면 가야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通譯 : 하마다 선생님,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濱田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樂浪 海中에 倭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 중국 사료로 저는 고대 일한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세기 전반에 그,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이 설치된 것이 왜인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출현, 등장이라는 것을 활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고구려가 이 현도군, 낙랑군에 대한 공격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것은 군권지배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지배방식은, 개별신분지배라는 것은 수렵을 주로 한 고구려족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저항을 상당히 강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남쪽의 가야족, 농경사회에서는, 이 봉건지배라는 것이 강한 저항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 혹은 기술과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흡수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13년의, 4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고구려족이 낙랑·대방군을 철퇴시키면, 이 일은 고대 일한관계의 그 후를 아주 강하게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고구려, 낙랑군, 대방군이 철퇴된 후, 가야족 중에서는 통합이 진전됩니다. 마한 쪽에서 백제가 성장하고, 진한 쪽에서 조금 늦어서 신라가 등장한다는 동아시아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왜인이 휩싸이는 커다란 정치변동이 진전해 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태식 선생님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칠지도의 문제, 즉 백제 왕권이 왜왕에 대해서 칠지도를 보낸다, 혹은 그 후 백제와 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구려 광개토왕과의 격한 전투가 전개된다는,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에 걸친, 이른바 제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동아시아 동란의 1세기가 개시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노중국 선생님이나 이시이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5세기, 이른바 ‘왜의 5왕’ 시대에, 백제에 서도 왜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가 크게 진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식 선생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고구려, 혹은 백제에서 왜보다 먼저 형성되어 있었다는 설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이 메모에서 쓴 바와 같이 4세기라는 시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속에서 일한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것이 고대국가 형성과정 속에서, 대외관계라는 것이 국가형성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그러한 시점에서 금후 대외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대외관계를 생각할 때 근현대의 대외관계 이해방법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결과를 지금까지 자주 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지배했다던가, 점령했다, 종속이라든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표현방법이 없느냐, 현재 시점에서 고대국가의 상하관계, 주종관계를 그려내는 것은 좀 어렵고, 과연 실체는 어땠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모의 두 번째에서 써 있는, 교류의 다양성, 즉 군사적인, 혹은 전쟁기사와 같은 기사도 중요한 기록이긴 하지만 그 외의 교류도 발굴하는 것으로 전체로서의 고대 일한관계를 재구성하자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전후 비약한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현구 : 진행 방법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 제안 드리겠는데, 아마 지금까지 양쪽에서 파트너들이 있어서 중간 발표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토론회의는 당사자들보다는 다른 분야에 계시는 나머지 네 분들이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자기주장을 다시 확인한 다던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테마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테마에 대해서 한 분이 오래 발언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식 : 김현구 선생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하마다 선생님께서 추가되는 논제 발표가 있으셨는데요. 앞으로의 연구에 관련되는 연구 방향이라던가, 지금까지 하마다 선생님께서 연구해 오신 기본 방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 神功紀 문제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마다 선생님, 神功紀에 대한 이해가 국제 사회에 왜인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칠지도를 통해서 백제와 왜가 4세기에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神功紀 49년조라든가, 52년조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 《일본서기》에서는 벗어나서 중국자료나 금석문을 통해서 구상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과는 상호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神功紀에 대해서 벗어나신다고 하면서도 역시 칠지도와 神功紀를 이용하시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神功紀의 자료적인, 자료로써의 神功紀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佐藤 :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오늘 김태식 선생님과 하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4세기 한일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3가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4세기, 5세기, 6세기에 공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 김태식 선생님은 4세기의 고구려·백제를 가지고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마다 선생님은 4세기의 한반도 제국, 혹은 왜 제국은 국가 형성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보충을 하면, 일본에서의 고대사와 고고학의 연구에서도 고대국가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확립되었다고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통일된 견해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는, 4세기 말의 광개토왕비에

왜가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가지고 4세기 후반에는 일본에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만, 지금은 광개토왕비를 가지고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고고학자 중에서는 3세기의 전방후원분 체제가 일본열도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고대국가, 전방후원분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5세기의 大王陵에 보이는 권력 집중의 양상을 보고 5세기에 고대국가가 확립한다,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7세기에 율령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견해, 이것을 7-5-3논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본의 고대사와 고고학 세계에서도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개념 문제에서는 또 하나, 팔호해서 군사적 지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식 선생님의 보고 중에서도, 화제 제공 중에서도 점령군인지, 작전중인 군대인지, 원군인지, 혹은 그 중간적인 성격인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의 일을 어떤 단계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각각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같은 곳에서 의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일본과 한국 사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연구자 사이에서 개념을 가급적 공통적으로 만들어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사료비판의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인데요, 중국사료, 혹은 광개토왕릉비나 칼의 명문 같은 금석문과 대응시키면서 《일본서기》를 비판적으로 다시 읽어보라고,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되는 다른 사료가 없을 경우에 《일본서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이것이 김태식 선생님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서기》에밖에 없는 사료인 경우에도 적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8세기 전반의 일본 고대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 기사가 완전히 신화적 전승인지, 혹은 그 배경에 뭔가 있어서 그와 같은 사료가 남아 있는지, 이것도 다양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연구자가 자신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입장을 제시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동아시아 4세기의 국제관계를 입체적, 다원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일한관계를 왜와 백제, 왜와 고구려, 왜와 신라라는 이국간의 관계만으로 보아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그려낼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제국, 송과의 관계, 왜와의 관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를 저는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石井 :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 간단하게. 지금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4세기 만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한 관계를 생각할 때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하마다 선생님의 메모를 보면, 제2부라고 할만한, 금후의 연구방법 및 전망, 그러니까 더 충분하게 의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세기에 한정해서 《일본서기》를 이렇게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5세기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그리고 6세기에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부라고 할까,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의 과제, 그리고 좀 전에 하마다 선생님이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오늘의 좌담회에서는 이제 의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면 아마 그것만으로 시간을 뺏기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倭의 統一時期에 대하여

노중국 : 사회 없이 자유롭게 좀 합시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게 저도 시간이 절약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시이 선생님 말씀대로,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뒤에 전망 쪽에서 한번 다시 다루면 좋겠고요. 4세기로 한정해서 봤을 때, 神功紀 7國 平定記事 문제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369년에 왜가 가야 7국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4세기 중 후반에 왜 자체가 일단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후에 저의 발표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宋書》 倭國傳에 의하면 5세기, 430년대에서 460년대에 와서야 왜가 통일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왕국의 상표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왜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세기 중 후반에 아직, 그때는 왜 자체가 통합도 안 되었는데 바다를 건너서 가야 7국을 평정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일본 측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佐藤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고학자 중에서는 3세기 전방후원분 체제가 전국에 보급된 단계를 가지고 고대국가 형성으로 보는 설도 있고, 결코 저는 그런 의견은 아닌데요, 4세기에 있어서도 이미 일본열도 속에서 고대국가 혹은 강력한 왕권이 생겨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石井 : 지금 노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생님의 말씀의 기본이 되는 일, 그것은 《송서》 왜국전 기사에 “祖禰 스스로 갑주를 두르고”, 즉 조네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의 화제로 나오겠습니다만, 그 조네가, 노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祖・父,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조상이라는 생각이라면, 이른바 통일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거라면 더 그 이전의 일이 되니까요, 이 기술, 《송서》 왜국전의 이 기사를 가지고 왜국 통일이 5세기 전반이 들어서부터이다, 따라서 그 신공기 369년이라는 것은 좀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노중국 : 祖禰 문제가 나와서, 오후에도 또 얘기가 되리라 싶습니다만,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측 표현이고 그 다음에, 중국측 자료에 찾아봤을 때 祖는 할아버지고, 禰는 아버집니다. 또 최근에 제가 泉南產墓誌銘을 찾아봤습니다. 泉南產墓誌銘, 淵蓋蘇文의 둘째 아들입니다. 7세기 때 만들어진 비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高祖, 曾祖, 다음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祖’, 아버지는 ‘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高, 曾, 祖, 禰. 禰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송서》 왜전에 祖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왕 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본다면 5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걸친 시기로 확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식 :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日本書紀》의 史料批判에 대하여

濱田 : 저도 한마디. 아까 제가 신공황후 49년조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식으로 김태식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서기》의 한국관계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일본서기》의 편찬과정이 30년이나 40년이 걸려서 720년에 완성되는데요, 그럴 때에, 그 시점에서 울령관료가 일본의 고대국가를 어떻게 구성해 가느냐 하는 역사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의 역사기록이라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악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사만을 100% 거짓말이다, 다소는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김태식 선생님은, 이에 대하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가, 혹은 100% 부정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의견도 있으니까 어느 쪽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본 기사의 어떤 부분은 100% 이렇다, 혹은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러한 《일본서기》의, 물론 이것은 편년부터 보아도 그럴 것입니다만 369년이 아니라 249년, 저어, 신공황후 49년이라는 것은 서력에서 말하면 249년, 그러나 이것은 曆을 120년 내린다는 것으로 369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편년의 문제부터가.

노중국 : 너무 겁니다.

濱田 :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서기》의 편찬과정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일본서기》 속에 있어서의 이 신공황후 49년조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밝힌 후에,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한 시각으로 이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신공황후 49년조가 아마 고대 일한관계 최초의 기사였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윤색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본서기》는 중국의 역사서를 모방해서, 혹은 日本書의 紀라고 하는 설이 있는 바와 같이 중국 正史의 대외관계 기록용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체와 멀리 떨어진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전체를 파악하면서 개별로 사료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태식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제가 발제문에서는 神功紀 49년조의 7국 평정기사를 대부분 학자들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토 선생님이나, 이시이 선생님이나, 하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안 계시고, 다만 오히려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방증 자료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측의 사토 선생님, 이시이 선생님, 하마다 선생님의 견해는 神功紀 49년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濱田 : 비약이시네요.

김현구 : 제가 볼 때 말하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하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 김태식 선생님의 질문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태식 선생은 직선적으로 물으셨고, 하마다 선생님은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겸해서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짧게 얘기하자고 해놓고,

조금 저도 축약해서 얘기해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마다 선생님의 발제문을 봐도 그렇고, 우리 김태식 선생님의 발제문을 봐도, 어떤 나라가 선진이었느냐, 약했느냐 강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일교류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가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국가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의 성격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가간의 관계가 우위에 있었느냐 강했느냐 약했느냐? 이런 얘기 보다는 왜 국가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본과 미국관계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본이 거의 이유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계 중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일본 자체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수십 년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실제 우위에 가 있었고, 어떤 나라가 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양한 교류에 앞서서 국가간의 관계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교류의 내용으로 얘기를 옮겨 간다면,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기존의 한일 관계를 그냥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 고대사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본 역사교과서에 ‘왜가 임나를 근거로 활약했다’는 표현이라던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중간 발표에서 우리 사토 선생님이 ‘任那 4縣을 백제가 요청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둥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사가 저는 49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처럼 기본이 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역시 한번, 여기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9년조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께서 형성 과정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할 거다, 사료 비판을 해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정 이전에 먼저 기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기사에서 《일본서기》 편자에 상관없이,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후에 《일본서기》 편자의 관념을

제거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비판을 보류한 상태로, 형성 과정부터 얘기할 것 같으면, 소위 ‘加耶七國 平定’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나가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佐藤 : 지금 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의 중간보고회에서 지금 김현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서기》를 인용했습니다만 《일본서기》 중의 이른바 ‘임나 4현 할양’을 믿고 있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서기》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맞는 내용이라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대로 문장을 읽어주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사료에서 분석해 보면 6세기 전반에 백제가 한반도 남서부에 진출했다는 것을, 그 표현 중의 하나로 《일본서기》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했습니다만, 《일본서기》의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서기》가 옳다고도 말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완전히 100% 《일본서기》를 부정할 것인가 하면, 《일본서기》에 그렇게 써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노중국 : 짧게 짧게 통역을 ...

佐藤 : 그래서 《일본서기》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이외의 사료에서 객관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그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식 선생님의 신공기 49년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은, 확실한 것은 8세기 전반에 일본 고대국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세기나 3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다른 역사사료와 비교하면서, 사료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믿고 있다던가, 아니면 100% 부정한단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현구 : 사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사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뜻도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의 그런 부분을, 사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

고, 《일본서기》에 이렇게 있다고 인용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하고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으로, 저는 아까 바로 그 하마다 선생님이 하신 것이나, 또 일본의 교과서에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일본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인용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3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것처럼 핵심이 되는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료 비판이, 그 자체에 대한 사료 비판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다른 사료들을 가지고 2차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2차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1차적인 그 기사 자체에 대한 사료 비판을 보류함으로써, 거꾸로 기존의 그 사료를 바탕으로 얘기했던 한반도 남북경영이라던가 이런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石井 : 지금 의논을 들으면서 느꼈는데요, 김태식 선생님의 문제설정의 방법은 all or nothing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어느 쪽이나 하는. 그것은 역시 사료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로써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료비판을 통해서 총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믿고 있기 때문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의논을 전개하면, 이와 같은 의논은 진전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김현구 선생님의 말씀에도 관계되는데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역시 역사연구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방식을 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佐藤 : 저도 이시이 선생님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혹시 사료를 100% 부정하게 되면 그 사료는 이제 다시 못쓰게 됩니다. 저는 《일본서기》는 8세기 초의 일본에 있어서의 고대국가의 입장에서 편찬한 사료로써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오래 전의 시대라서, 혹은 국가의 역사관 때문에 수식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비판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는 쓸 수 있고 어느 부분부터가 8세기에 수식된 내용인지를 검토하면서 사료를 살려간단, 살린다는 것은 긍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료비판이지, 사료부정의 경우 그

사료는 두 번 다시 실제로 쓸 수 없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神功紀 49년조를 100% 믿는다, 100% 부정한다, 이런 논의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논의됐으면 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신뢰성이 있고, 어떤 점은 신뢰성이 없는가? 이런 것을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결국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것이 신뢰성이 있는 쪽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없는 쪽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료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하시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해 받은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韓半島 南部 經營說에 대하여

김현구 : 이시이 선생님이나 사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에, 이시이 선생님께서 곡해하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이 선생님! 아까, 예를 들어서 '49년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9년조라든가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저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9년조가 과거에 소위 한반도 남부 경영을 이야기 할 때 그 바탕이 됐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는 거지, 여기서 결론을 내고, 결론을 안 내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石井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신공기 49년조를 근거로 해서 한반도남부 경영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있습니까?

김태식 : 지금 스에마쓰 선생의 견해인데, 그 이후로 그것을 뒤집는 연구는 많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설서에는 그대로 그걸 근거로 한 결론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문제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濱田 :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石井 : 개설서? 개설서입니까. 개설서라도 지금은 그러한 기술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태식 : 네 그렇죠,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설서 또는 개설서의 견해가 또다시 정리된 교과서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는 서술들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이 선생님이 ‘그러한 서술이 개설서에도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시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통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만 해도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石井 : 통상적인 연구자에 의한 개설서라는 것은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이며, 아마 저는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에 의한 저서에서는, 저작에서는 아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자신이 스스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무책임하긴 하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김 선생님도 그러한 기술이 있는 논문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구 : 김태식 선생님과 노 선생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근거로 한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노중국 : 49년조를 근거로 해서 ...

김현구 : 그걸 근거로 해서는 없다는 거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중국 : 그런 차이가 있네요.

김태식 : 아까부터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요. 개설서 자체에서, ‘神功紀 49년조에 근거로 해서 볼 때,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개설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개설서는 없습니다. 다만 임나 경영이라던가, 한반도 남부 경영이라던가, 이러한 결론적인 역사 인식이 보이는 개설서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설서들 중에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올림피아 호텔에서 발표한 발표 요지에서도 주석에 몇 개 달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神功紀 49년조에 근거해서 한반도 남부 경영을 얘기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개설서 중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石井 : 개설서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중국 : 예, 일본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神功紀 49년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료 비판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 각각의 사료 비판도 여러 갈래로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합일된 사료 비판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신공 49년조의 기사를, 결과적으로는 전폭적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전폭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까지 믿을 것인가 하는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정리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하는 걸 저도 솔직히 사실 좀 듣고 싶었고, 나는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는 걸 듣고 싶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사료 비판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생각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그게 좀 여전히 궁금합니다.

김태식 : 예,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1분과에서 4세기에 할양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제가 3가지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도 제대로 논의가 못 되었는데요.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4세기 논의를 끝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점심 먹고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까? 우선 이것부터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濱田 : 김현구 선생님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어, 역시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 좌담회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까 전의 노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역시 《일본서기》에 대한 접근의 정도가 일본과 한국은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일단 戰前の 《일본서기》 중

시의 역사상에서 떠나서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떨어지고, 그리고 고대사를 생각하고, 다시 《일본서기》를 읽어본다는 방향에 있습니다. 《일본서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일본서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비판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긴 연구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생님들은 요즘의 김현구 선생님의 업적도 있어서, 혹은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일본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어서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열이 아주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49년조를 비롯하여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이른바 지배에 연결되는 기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아주 편한데요, 저는 아직 사료비판의 과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너는 49년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힐문하셔도 무책임한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노선생님이 일본 연구자들에게 한사람씩 “그러면 너는 어떠냐?”고 오랫동안 힐문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현구 : 오늘 말이 많습시다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당한 애깁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하마다 선생님이나 사토 선생님이나 다 주위의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부터 《일본서기》로 접근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왜 일본학계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일본서기》의 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서기》를 주체로 한 사료 비판에 대한 어떤 한계성, 또는 스스로도 좀 납득할 수 없던 내용들이 있어서, 결국 주위의 것을 연구해서 《일본서기》에 접근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일본학계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서기》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주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보다 선결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별 중요 기사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는 귀 기울이고 싶은 겁니다.

佐藤 : 저어,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이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에 했는데요, 지금 김현구 선생님, 하마다 선생님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서기》 사료비판의 차이 같은 게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가지고 근본적, 본질

적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가 한반도를 경영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한 왜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있었다면 곤란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입관 없이 역사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시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제 주변에서는 김태식 선생님이 제시하신 신공기 49년조를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연구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아마 신공황후의 전승 전체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저는 사료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사료비판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료비판할 때는, 뭔가 새로운 사료라든가 혹은 고고자료 등 사료비판을 하기 위한 역사자료, 재료가 없으면 사료비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서기》의 편찬과정을 相對化해서 보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지금은 상당한 부분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49년조에 대한 사료비판을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아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9년조만이 아니라 김태식 선생님의 3번째, 4세기 한일관계 전체의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다시 이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조문의 사료비판을, 《일본서기》의 기사를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중국 : 김 선생님, 저기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진행 문제와 좀 관계되는데, 김 선생님이 제시한 1, 2, 3번 중에서 3번은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나중에 ‘전망’ 속에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2번은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논의를 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세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단오제는 사실 가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연구하고 발표하는 게 중심이지, 단오제 보는 건 사실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싶은데. 의견을 좀 ...

김태식 : 5세기와 관련된 이시이 선생님께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石井 : 우선 노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야 5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논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견학에

대해선데요,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천천히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식 : 그러면 이시이 선생님이 찬성해 주셔서, 일단 4세기에 관련된 좌담회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5세기를 노중국 선생님이 주관, 아니, 이시이 선생님과 노중국 선생님이 함께 주관하시면서 광개토왕릉비문의 倭寇는 5세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니까, 잠깐 얘기를 하고 5세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오제는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가서 ...

濱田 : 일년에 한번 있는 축제니까.

김태식 : 단오제는 짧게.

노중국 : 이시이 선생님만 괜찮다면 내일 봐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답사는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시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김태식 : 그러면 우선 오전의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식사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시죠.

(점심 식사 후)

倭軍의 성격에 대하여

노중국 : 자. 그러면 오후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식 선생님이 발제한 것 중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신공조 49년조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오후 좌담회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광개토왕릉비문에 실려 있는 왜군의 성격,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선생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식 : 제가 왜군의 성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왜군이 한반도 남부의 점령을 원하면서 아직은 이를 완수하지 못한 작전 중의 군대였을까 라는 것이 하마다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신가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마다 선생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濱田 : 예? 저는 그런 말은 안했는데요. 아닙니다. 왜군의 성격에 대해 저는 구체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한국측에서 제 견해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점령을 바랬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노중국 : 그런 표현은 안 썼다는 얘기군요. 비문에 보이는 왜군의 성격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능하면 말씀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主體는 倭인가 百濟인가

김현구 : 오전에도 결국 접근방법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왜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묘년조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의를 해도 결론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연 의의가 없으면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404년조의 왜가 대방계를 침략했다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중일 왜에 관한 기사 중에서 이 기사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사고,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이는 왜의 주체가 결국 지리적으로 볼 때는 바다를 건너서, 가야를 건너서, 백제를 지나서, 대방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여기 보이는 왜는 가야, 백제, 왜 삼국이 연합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주체가 결국 어디였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를 주체로 볼 때에는 바다를 건너서, 가야나 백제를 건너서, 고구려와 싸워야 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고, 또 가야나 백제를 그 이전에 영향 하에다 넣었다고 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백제는 왜를 끌어들였다는 내용이 있고, 또 고구려와 매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백제를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 백제가 404년 이전에 언제 가야와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 神功紀 49년조라고 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구려와 싸운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가야와 백제를 영향 하에다 넣은 기사로써 유일한 것이 어떤 면에선 神功紀 49년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49년조에 특히 가야 7국 평정, 평정이란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가야 7국 평정이라는 기사의 주체가 백제였는가, 왜였는가를 한번 논의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 주체가 백제라고 한

다면 광개토대왕 404년조에 보이는 것처럼 백제가 왜를 끌어들이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고, 왜라고 한다면, 그 주체가 왜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중국 : 예, 다른 선생님.

김태식 : 예, 저도 김현구 선생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神功紀에 나오는 49년조의 기록에 대해서는 보다 더 사료적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欽明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欽明紀에는 성왕이 ‘근초고왕 때 가야의 여러 소국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서 형제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역시 神功紀 49년조도 백제와 가야가 사신 교환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기사인데, 그 기사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주체가 바뀌고 또 과장되고 해서 실린 기록이 神功紀 49년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중국 : 또, 다른 선생님.

濱田 : 우선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현구 선생님, 404년조라는 것은 “왜가 不軌하게 帶方界에 침입했다.”는 기사인데요, 여기에는 왜가 나오고 백제 혹은 가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주체는 백제라고 해석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404년조는 일단은 왜를 주체로 기술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현구 : 하마다 선생님이 모르고 물으셨을 턱이 없기 때문에 떨립니다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가 대방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가야나 백제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세 나라가 협력한 군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단 왜가 주체인 것처럼 광개토대왕비문에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고구려 입장에서 왜를 강하게 부각시킨 거지, 기본적으로 이 세 나라가 협력한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399년의 백제가 왜를 끌어들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佐藤 : 지금의 그 부분의 해석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호태왕비 제3면 세 번째 줄 14년 경신인가요, 왜가 뜻밖에도 대방군에 침입

해서 라고, 하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뜻밖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왜 順當하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태왕비를 해석하면, 왜가 올 리가 없는데 왔다, 그래서 不軌라고 써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점은 어떠신지요. 백제가 왔던 거라면 고구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뜻밖에도 왔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왜가 왔으니까 뜻밖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저는 - 호태왕비 해석으로는 그 실체가 연합군인지 알 수가 없지만 - 역시 왜가 왔다는 것이 고구려측의 인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구 : 저는 사토 선생님 바로 그 말씀이 그 주체가 백제라는 걸 보여주는 뜻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백제가 오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왜가 끼어왔기 때문에 거꾸로 왜를 부각시킨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중국 : 예, 그러면 사회도 말할 수 있지요? 저는 그 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문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까지의 한반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이 비문 외에도 《삼국사기》하고, 《위서》 백제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시기에 그 대외관계는 고구려와 백제가 양대 축을 이루고 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서》 백제전에도 보면 백제와 고구려가 중심축을 이루고 대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비문에 대입시켜 보면 바로, 고구려와 싸운 주체는 백제로 보아도 좋고, 아니 백제가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문에 보이는 왜는 결국은 백제를 도와주러 온 지원군과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구 :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제가 삼국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금방 사토 선생님이 왜가 백제와 함께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한 표현으로 보면, 결국 사토 선생님의 말씀은 왜 단독 군대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단독 군대가 가야와 백제를 거쳐서, 대방까지 올라온 것은 가야나 백제를 영향 하에다 넣었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佐藤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문을 해석하신 하마다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단 호태왕비 제3면 세 번째 줄의 기술은, 역시 왜가 뜻밖에도 대방

군에 침입했다는 것으로, 고구려의 당시의 인식으로서 쓰인 이 문장을 해석하면 왜가 왔고, 여기서는 연합군인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백제와 연합해서 왔었다면 왜 399년과 같이 백제와 왜가 함께 왔다는 식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태왕비의 사료비판을 우선해야 되고, 그것을 여기서 기술된 내용은 왜 이런 식으로 기술되었는지부터 확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濱田 : 또 문화의 차인가요, 이 전쟁에 있어서 어느 쪽이 주체였는지는, 백제에 있어서는 백제가 주체이고, 왜에 있어서는 왜가 주체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해 보면, 玄海灘을 통과해서 가야를 지나, 백제를 지나서 그리고 대방계까지 간다고. 이것은 주체 그대로이고, 그리고 모든 입장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각의 입장에서 전쟁을 회고하고 있고,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이 성립하니까. 저는 어느 쪽이 주체냐고 하는 판단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6대 4로 백제가 주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구 :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합니다. 백제 입장에서 보면 백제가 주체일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주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의 기본적인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나라가 기본적인 성격에 응해서 거기 참여를 했고, 어떤 나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참여했는가, 이런 문제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백제는 비교적 입장이 확실한데, 일본의 입장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주체라고 할 때, 그 전쟁의 성격과 참여한 일본의 목적이 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마다 선생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濱田 : 비문 자체는 고구려 입장에서 써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를 주체로 쓰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고구려와 왜의 전쟁이라는 식으로 비문의 구성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세기 초부터 고구려와 직접 대립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은 백제입니다. 혹은 신라입니다. 왜와의 충돌은 약간 간접적이라고 할까요, 양자 사이에는 백제·신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문은 고구려와 왜의 대립 속에서 묘사되고 있고, 백제와 신라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과 대조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삼국사기》 중에 3세기, 4세기를 통해서 왜인이 신라의 동해안, 혹은 현재의 경주, 금성을 습격했다는 기

사가 3세기와 4세기 사이에만 나온다는 기사를, 황당무계하다면서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이 비문의 문제, 혹은 고대 일한관계를 생각할 때의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중국 : 비문 전체에서 396년 병신년조부터 400년조까지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백제 중심으로 싸웠다고 봐도 괜찮다 싶습니다. 399년에 백제가 왜와 화통하고 난 다음에 그 싸움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404년의 기사를 해석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방증해 주는 것이 《위서》 백제전, 또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하고 백제와의 치열한 전투, 이것이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이 선생님!

石井 : 글썄요, 비문에 보이는 왜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 전번의 전체회의 발표에 입각해서 오늘의 문제제기를 들어보면, 비문에 쓰여 있는 왜란 그 실체가 백제라고, 혹은 백제의 원군이라고, 그러한 해석이 김 선생님의 기본적인 견해이신가요. 그것을 우선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중국 : 잠깐, 백제의 원병인지 아니면 백제인지?

김태식 : 예, 역시 백제와 가야를 돕기 위해서 온 원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石井 : 그렇게 되면, 이 비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왜의 실체가 그 원군이었다고 하면 좀 더 표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백제가 좀 더 전면으로 나와야겠죠. 이 부분에 가장 의문이 듭니다. 원군이라고 해도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백제의 군대, 그것을 돕는 것이 왜, 그렇게 되면 그 표현은 역시 백제가 전면에서 서서 표기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구려가 백제라고 쓰지 않고 왜라고 표기한 이유입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태식 : 그 당시의 백제는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조금 전까지도 고구려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그 조금 전에는 고구려의 왕인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고국원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광개토왕이 즉위하고 나서 전세가 고구려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은 사실은 백제 본토의 북부지역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백제의 원군이었다고 보이는 가야 지역을 둘러싸고도 일어나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 고구려가 예기치 못한 왜군이 나오자,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지나친 적개심이 있었고, 거기예다가 아주 먼 데서 잘 모르는 지역에서 온 왜군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서, 왜군을 전면 에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광개토왕릉비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구려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비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백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지역의 이민족들까지 상대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내부적인 목적으로 왜군을 보다 더 전면 에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중국 :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고구려가 직접 공격을 한 대상은 碑麗, 肅愼, 東夫餘, 百濟 4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碑麗, 東夫餘, 肅愼은 전쟁의 주체로써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세 나라의 싸움은 고구려 군하고 각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군의 싸움에는 여기에는 때로는 왜군도 포함되어 있고 가야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른 세 나라하고의 싸움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백제군 속에 다른 외국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다 더 강조되어서 비문에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시작한지 거의 40분이 지났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5세기를 하다보면 역시 또 연결되어 얘기가 더 될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5세기 얘기할 때 필요하면 광개토왕비 얘기도 조금 언급하기로 하고, 한 5분 쉬고 그 다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구 :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했는데 아마다 선생님이 답을 안 해주셔서 다시 지금 여쭙보려고 합니다. 주체가 왜인 것처럼 되어있는데, 왜가 고구려하고 싸운 이유가 저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혹시 생각하신 게 평소에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濱田 : 주체라는 것을 저는 하나로 보지는 않고, 둘 다 주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싸우는, 고구려의 남하라고 할까요, 백제와의 격렬한 전투라는 것은 왜가 보아도 스스로의 위기로 비쳤을 겁니다. 또 하나, 비문에 있어서의 왜의 평가는 근년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할까, 저어, 여러 가지, 비

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하는 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石井 : 하나만 말해도 됩니까. 역시 기본적으로 왜왕 무가 상표문을 가지고 송나라에 대해 고구려 원정을 청원하고 있다, 고구려 원정 비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왜가 고구려에 원정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김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회답이라고 할까, 고찰하는데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김현구 : 지금 이시이 선생님이나 하마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왜가 帶方界에 쳐들어간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왜는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는 데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는데 대해서 왜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왜가 가야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까지 쳐들어온다고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마다 선생님이 고구려가 당시에 일본까지 쳐들어간다고 생각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결국 그렇다면 왜가 가야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얘기하던 온 한반도 남부 경영론하고 같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石井 : 점령하고 있었다, 점령하지 않았다, 라는 점과는 아마 직접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일본으로서도 역시 백제 등이 느끼고 있던 바와 같이 고구려의 남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점령이라는 것에 상관없이 느끼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무의 상표문은 결국 일본이 직접 침략을 당해서가 아니라 백제가 고구려에 침략을 당해서, 그래서 자기들도 송나라의 힘을 빌려서 원정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일본열도라고 하면, 일본열도에 직접 고구려의 힘이 밀려와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고구려의 남하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그것을 근거로 한 위기의식에서 무는 상표문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하신, 백제 고구려 직전의 신라를, 그리고 일본의 대응을 풀어보면, 그러한 상황을 상정해 보면 비슷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직접 당나라의 힘이,

백제가, 그리고 고구려가 일본에 미쳐 올 것이라는 상정 하에서 양국이 각각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직접 일본이 백제를 점령 하에 두고 있다는 상태를 상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구려에 대항하려는 뜻은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濱田 : 오전에도 이시이 선생님, 사토 선생님, 저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개념의 문제입니다. 침략, 선생님의 직선적으로 왜가 가야를 침략했다는 설에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저는 고대의 백제, 혹은 가야, 왜는 오늘날의 침략이라든가 동맹과는 좀 다른 뭔가, 더 다른 관계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명공동체라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현재와 같은 국제관계의 개념과는 다른 생각, 그런 게 없는지. 저는 왜가 가야 지역에서 그런 격렬한 전쟁을 했다는 고고학적인 유물, 출토물은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중국 : 지금 이거 가지고 거의 50분 지났는데요. 한 5분만 쉬고, 5세기 좌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5분 휴식)

5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

노중국 : 예,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제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石井 : 저부터 입니까.

盧重國 위원의 發題

노중국 : 순서에 의하면 제가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먼저 하시겠으면? 그럼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서》 왜국전에는 왜왕이 자칭한 諸軍事號와 그 다음 왜왕 武의 상표문에 정복활동 내용과 함께 고구려가 邊隸를 초략하고 왜의 對宋通交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내용은 그대로고요. 추가하는 것은 아까 2쪽에, 잠깐만요.

김태식 : 노 선생님! 추가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생님의 발제문을 요약해서 하는 게 나아요.

노중국 : 그래요,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왜왕이 자칭한 諸軍事號를 근거로 해서 왜가 한반도 남부 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坂元義種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런 견해는 저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다를 건너서 海北을 평정했다고 할 때, 海北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 대다수의 견해는 海北을 한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한반도는 서쪽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일본서기》에 의하면 북규슈 지역이 해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西服 중의 西는 규슈가 포함되지 않은 吉備, 出雲 지역에 대한 평정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해북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宇佐島에 의해서 보듯이 북규슈지역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왜왕이 동쪽으로 정벌하고 서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해북을 평정한

시기는 왜왕 武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祖禰가 단순히 조상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春秋左氏傳》 외에도 앞 시간에 언급을 했던 泉男産墓誌銘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邊隸의 문제입니다. 일본학계에서는 이 邊隸를 백제로 보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上表文에 왜왕 興이 왕위를 이은 것을 邊業을 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邊은 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邊隸는 倭人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백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래에는 이 邊隸를 백제로 보고, 고구려가 백제를 자주 공략하고, 백제인들을 抄掠하기 때문에 왜가 고구려를 공격해 온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러한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송서》 왜전을 토대로 해서 왜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카모토의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시이 선생님, 하시지요.

石井 위원의 發題

石井 :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지금 노선생님의 의견과는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간단한 메모이지만 화제제공자로서 오늘의 좌담회의 테마로 삼으려고 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어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됩니까.

노중국 : 생각이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石井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좌담회 테마로 삼으려고 한 일을 두세 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노선생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중국 : 알겠습니다, 예.

石井 : 제가 5세기 일한관계사를 생각하는, 특히 왜 5왕과 관련시켜서 5세기의 일한관계사를 생각할 때,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속담에 ‘직함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왕에 관련해서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직함, 즉 관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정세 등, 혹은 국제적 지위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직을 떠나서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일본열도, 즉 동아시아의 정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왜 5왕 즉 조선 삼국과 왜에 대해 생각하려고 오늘 연표 등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시간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관계상 아까 전의 노선생님의 견해, 그 중에서 제가 읽어봐서 이 부분이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가 되어 있는 일인데요, 이 가운데 坂元義種 씨의 이해라고 하면서 이 왜국왕의 관직에서 판단하여 반도 남부의 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했다, 혹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坂元 씨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노중국 : 예, 사카모토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 지난 번 합동토론회 때와 비슷한 얘기가 되지만, 《연구사 왜의 5왕》이나 그 다음, 《동아시아의 일본과 조선》,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그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藤間生大, 鈴木英夫 선생님들께서도 왜 5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해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石井 : 아마 그것은 좀 틀리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할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요컨대 지배했다는 점과 지배하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는 칭호에서 보아 군사적으로 지배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서는 이제, 학회에서는 그런 의견은 아마 없을 겁니다.

노중국 : 그러면 지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石井 : 예, 제가 말입니까.

노중국 : 근래 연구 경향이든, 아니면 이시이 선생님의 스스로 생각이든.

邊隸의 실태

石井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적

어도 그런 칭호니까 지배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지배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칭호를 얻으려고 했다, 그런 행동으로 나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시 아까 나온 祖禰 문제와 관련하는데요, 요컨대 이 무의 상표문에서 진술되고 있는 동·서·북으로의 정복사업이라는 것, 이것을 노선생님은 祖는 조부, 禰는 아버지라고 하셔서 무의 조부 및 아버지의 시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셔서, 5세기 전반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祖, 그리고 禰라는 한자가 조부의 의미도 있고 아버지의 의미도 있다, 이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단 이것도 조부와 아버지에 한정해서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상이라는 뜻으로, 아까 나온 泉男産墓誌銘에도 高祖·曾祖·祖·禰라고 4명의, 이른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高·曾·祖·禰, 그것을 포함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표문의 내용에서는 아버지를 ‘亡考’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父’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의 차이에서 보면 이 祖禰를 조부나 아버지에 한정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邊隸’의 실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노선생님의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저도 문제로 삼고 싶은 부분입니다. 노선생님이 邊隸를 ‘왜의 民’으로 이해한다는 그 근거는, 興이 새로 즉위했을 때 송나라 황제에게서 ‘邊業을 잇는다(新嗣邊業)’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邊이란 즉 왜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노중국 : 제가 얘기한 것은, 왜 스스로가 중국에 대해서 자신을 ‘邊’으로 봤다는 얘깁니다.

石井 : 단 중국, 중화에서 본 경우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邊에 위치한다는 게 통상적인 중화세계의 이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제도 邊이고, 고구려도 邊, 그리고 왜만이 邊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邊隸에서, ‘변방의 예속민’이라는 견해가 나왔고, 노선생님이 이를 ‘民’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만, 역시 그 邊隸는 변방의 예속민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邊隸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백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왜가 백제를 지배했었다는 것을 주장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고구려 남

하에 대한 위협, 이것은 백제를 통해서 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특히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祖禰’의 해석에 대하여

노중국 : 이시이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祖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笠井倭人 선생님의 《연구사 왜의 5왕》에서 정리돼 있듯이, 방금 이시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선조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는 견해도 있고, 심지어 禰를, 《梁書》 倭國傳에 나오는 왜왕 珍 또는 彌, 이것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祖에 대해서는 대개 할아버지라는 데에 대해선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禰도 아버지라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걸 합쳐서 사용했을 때, 祖禰를 합쳐서 사용했을 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선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祖禰 문제는 왜왕 武가 자기들 조상이 정복 활동을 했다는 것을 송나라에 알리고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막연하게 조상이라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 조상 누구누구가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게 보다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祖와 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서》 왜국전에는 왜왕 珍과 왜왕 濟 때에 신하들에게 將軍號, 또는 軍號를 除授한, 假授해 준 기록이 나옵니다. 이 將軍號, 軍號를 假授해 준 것도 이런 정복 활동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막연하게 선조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2대, 3대, 4대, 5대, 6대 선조인지, 선조라 하면 상당히 막연하게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는 게, 그게 보다 더 사실에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禰도 있고, 亡考도 있고, 父兄도 있습니다. 《송서》 왜전에는. 이것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같은 내용, 같은 용어를 되풀이하지 않는, 문장 쓰는 관습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禰를 아버지로 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邊隸’에서 邊隸를 백제로 볼까요? 이시이 선생님 백제로 본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邊隸 자체는 왜인으로 봐야 된다고, 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서》 왜전에는 백제는 ‘百濟’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上表文에도 ‘百濟’로

나옵니다. 그러나 왜의 경우에는 흔히 ‘새로이 邊業을 이었다’, 새로이 왜 왕위를 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왜에 대해서는 邊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서》 왜국전에 의하면, 邊은倭이지 백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邊隸는 결국 왜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인이라고 하더라도 고구려가 邊隸를, 왜인을 抄掠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초략의 대상은 일본 본토 안에 있는 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표문에 보듯이 왜의 사신이 송으로 갈 때, 고구려의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략된 邊隸의 구체적인 실체는 사신, 왜의 사신단과 같이 간 상인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이상 저의 생각입니다.

김태식 : 지금, 이시이 선생님과 노 선생님 두 분의 토론 중에서 왜왕 武의 상표문에 대해서 서로 달리 보는 입장이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將軍號가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표명한 것이라는 점이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본 기억에 의하면, 사카모토 선생의 책에서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그 將軍號의 내용이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爵號로 보았을 때, ‘諸軍事號’에 들어가는 6국 내지 7국 중에 백제가 이미 왜왕보다 더 한 등급 높은 將軍號를 띠고 있고, 또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그것이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던가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선생님의 논문을 정확히만 이해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개설서에서 사카모토 선생이 그 뒤에 ‘실효성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 추정은 빼고, 왜왕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려는, 한반도 남부의 지배권을 가지는 爵號, 즉 將軍號를 송나라에게 요청했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무언가 그 개설서를 읽는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왜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릇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중국 : 예, 사카모토 선생님의 글은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읽어보겠습니다. 반면에 혹시 사토 선생님, 제가 이제 祖禰나 邊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사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祖禰나 邊隸에 대한.

佐藤 : 글쎄요, 祖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지, 아니면 조상인지 하는 문제는 아주 미

묘한 문제라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확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송서》 왜국전 중에서는 武의 아버지는 濟라는 것은 확실한데요, 이 《송서》의 기재에서는 그 전의 珍 때는 조부라는 식으로는 기재하지 않았거든요. 계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祖禰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邊隸에 대해서, 저는 隸는, 노중국 선생님의 해석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중국 : 武의 할아버지가 珍이나 아니냐는 《송서》 왜전만 가지고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祖禰를 볼 때, 이게 武의 할아버지가 누구이든간에 珍이든 아니든 간에, 祖禰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리키느냐, 막연하게 선조를 가리키느냐는 것에 따라 왜의 일본열도를 통합한 시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면 430년대에서 적어도 한 460년대로 이렇게 그 시기를 볼 수 있지만, 선조로 봐 버리면 이게 300년인지 200년인지 그 연대를 사실은 이게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祖禰가 할아버지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리키느냐, 단순히 선조만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분명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佐藤 : 이것은 한자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 父祖라고 한 경우는 아버지와 조부인 경우도 있고요. 저는 자전에서 祖만 찾아봐서, 禰도 찾아보면 노선생님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祖禰’라고 숙어로 얘기할 경우는 100%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시이 선생님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단 저는 이 상표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입장이 아닙니다. 상표문에 조상이라든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 정도의 일을 했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저는 역시, 5세기 일본에 있어서의 고분문화의 변천 등으로 뒷받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왜왕 무의 자기주장을 쓴 문서라서, 사료비판이 필요한 문서라고. 예를 들어 여기에 父祖라고 써 있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혹은 조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서 몇 백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왜왕 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祖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인 5세기 일본열도에 있어서의 대왕 권력이라든가 지방호족과의 관계라

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증해 가지 않으면 실제적인 일본열도의 중앙집권제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의 邊隸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濱田 : 잠깐만요. 저어, 저도 노선생님의 邊隸의 문제, 혹은 祖禰의 문제, 혹은 海北 95國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읽을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노선생님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반대의 의미로 강화한다는 것으로, 하나 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祖禰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시기라고. 그리고 왜왕 무가 그 전에 자칭하면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상표문을 보내면서 “祖禰가 옛날부터 갑주를 두르고 동쪽으로 毛人 55국, 서쪽으로 衆夷 66국, 건너 海北 95국을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에 여러 가지 불행이 있어서, 오늘 일족의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병사를 움직이려고 해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祖禰, 옛날 祖禰 때 이 정도의 전투를 했다고 하는 문장과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풀려면 역시 祖禰는 조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石井 : 잠깐만요. 하마다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고구려에 대한 원정군, 그것을 준비했지만 아버지와 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라고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죠. 고구려 원정입니다. 보통은.

濱田 : 아, 그렇습니까? 그것과 아울러 邊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왜왕 무는 “使持節 倭百濟 云云”이라고, 使持節 안에서 백제를 의식하여 넣고 있습니다, 使持節을 푸는 범위로서. 그러면 이 상표문 중에서, “길을 백제에게 빌려서 중국 남송에 다녔는데, 句麗가 無道하여 그것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邊隸를 뺏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역시 왜 안에, 왜 세계 안에, 왜 뿐만이 아니라 백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邊隸라는 것은 백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노중국 : 예,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하마다 선생님! 왜왕 興이 ‘新嗣邊業’ 할 때, 邊은 왜입니까 백제입니까? 새로이 邊業을 이었다 했을 때, 邊이 백제인가 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濱田 : 예, 이것 말입니다, 왜입니다. 변이 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해당되는.

노중국 : 상표문 안에서 이야기 할 때는, 邊業의 邊은 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표문에 있어서는 왜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한 얘기가 되는데, 邊隸를 백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상표문 안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지요. 상표문에는 ‘道逕百濟’에서 볼 때, 상표문에는 백제는 ‘百濟’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石井 : 그래서 저 말입니다, 아까 하마다 씨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부터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나누어 드린 사료의 2395페이지, 상표문입니다. 그 왼쪽에서 1, 2, 3, 4, 5, 여섯째 줄의 아래쪽입니다. 아까 하마다 선생님이 읽으신 부분인데요, 길(道)의 아래 글자는 아마 ‘지나서(徑)’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길은 백제를 지나서 船舫을 장치하였다. 그러나 句麗는 무도해서 꺾어서 見呑하려고 하여 邊隸를 초략했다.”고 써 있습니다. ‘見呑’이라는 것은 보통 병합인가요, 병합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노선생님은 무엇을 견탄하려고 했다고 해석하셨나요. 왜인가요, 백제인가요.

노중국 :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왜냐 백제냐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상표문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왜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왜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圖欲見呑’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바로 그 밑에 ‘抄掠邊隸’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 밑에 邊隸를 掠抄했다. 이때의 邊隸는 백제가 아니고, 邊隸를 掠抄했기 때문에 송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어떤 때는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가기도 하고 막혀버렸단 거죠. 그렇게 보면 이때의 邊隸나 見呑은 기본적으로 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石井 : 애매한 답변이라서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견탄하려고 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고구려가 견탄하려고 한 대상. 무엇을 견탄하려고 했는지.

김태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조공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백제에 들러서 船舫, 즉 배를 꾸미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가 무도해서 삼키려고 했다 하는 삼키려는 대상은 그 배라고 ...

石井 : 그럴 때 見呑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김태식 : 배를 삼킨다, 그 배는 아주 보물도 많고 그런 배이기 때문에 삼킨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石井 : 좀 이해가 안 됩니다. 見呑이라는 것은 뭔가, 영역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佐藤 : 저도 見呑이라는 말이 있으니가 邊隸의 隸는 예속민이라고 하기보다 예속하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濱田 : 아니, 이 부분인데요, 처음의 邊業이라는 것은 송나라의 황제가 왜왕 흥에게 詔를 내렸을 때, 송에서 봐서 새로 왜왕이 된 흥이 邊業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고, 송 황제에서 보면 주변의 왕으로서 정치를 계승했습니다, 라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왜를 나타내는데요. 또 다음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邊隸라는 것은 이 왜왕 武가 상표문을 보냈을 때, 역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대망상적인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문을 보냈을 것으로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과대망상적인 왜왕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이 상표문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역시 邊隸라는 것은 한 상인이라든가 사절단이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생님의 견해는 일본학계에서는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중국 : 지지를 받고 안 받고 보다 지금 일본학계에서는 당연히 ‘邊隸=백제’라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이 상표문 전체를 한번 새롭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백제가 아니라 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점도 한번,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상표문 자체에 충실하게 한번 봐달란 겁니다. 왜국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실하게 봐 달라고, 다른 선입견은 가지지 말아달란 애 겁니다.

石井 : 노 선생님의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단 그렇다면 노선생님께서도 그러한 선입관, 예를 들어 ‘邊’이라고 하면 ‘倭’다, 이와 같은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기본부터 다시 살펴보자고 하는 점은 저

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노중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邊의 해석문제 다음에, 왜전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석을 해 보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여러 자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른 해석 자료를 먼저 쓰고 왜 상표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왜전 내에서 최소한 먼저 해석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하고,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봤을 때 邊은 倭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른 것 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식 : 제 생각에는요, 여기 邊隸를, 사실은 저는 노중국 선생님 생각하고 달리, 그냥 백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볼 때요, “중국에 가는데 길이 멀어, 가는 길에 백제에 들러서 선박을 꾸렸다. 그런데 고구려가 무도해서 그 선박들을 삼키려고 해서, 백제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삼키려면 백제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백제를 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쳤다. 그래서 매번 배를 띄우는 시기가 지체되어서 좋은 바람, 중국에 갈 때 좋은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좋은 바람을 항상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 길이 있기는 한데, 通하기도 하고 不通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기록은 일본이 백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중국에 조공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것을 백제가 이용해서 왜군을 끌어들이려는 외교적 의도, 이런 것이 표현된 문장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渡平海北九十五國’에 나오는 ‘海北’의 위치

노중국 : 근데 이제 같은 상표문 안에서 하나는 백제로 나오고, 백제란 표현과 邊隸란 표현이 있을 때, 양자를 같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백제는 백제이고, 邊隸는 왜가 송에 대해서 자국을 낮춰서 한 표현으로 해석을 해도 이 문장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30분밖에 채 안 남아서, ‘渡平海北 95國’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海北을, 海北 95국을 평정했다. 여기에서 해북에 대해서는 거의 한반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때의 해북은 북규슈 지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래의 이해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濱田 : 저는 악의가 있는 게 아닌데요, 역시 왜의 상표문 중에서 왜 5왕, 무왕의 상표문 중에서 무왕은 어떻게 주장하려고 했는지, 어디까지 역사가 반영하고 있는지는 좀 일단 두고, 여기서 노선생님은 《일본서기》 神代紀 중에서 宇佐를, 宇佐神宮이 있는 大分縣은 瀬戸内海에 접한 곳인데요, 그 부분에 海北道中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해북이란 북부 九州라는 논리를 방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일본서기》 해석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宇佐섬이 지금 海北道의 中에 있다.”고 저는 읽고 있는데요, 해북에 이르는 道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북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은 宇佐가 아니라 宇佐보다 더 들어간 곳, 즉 宇佐는 해북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선생님께는 형편이 안 좋은 사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길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노중국 : 네, 글썄 하마다 선생님, 제가 인용한 그 문장에서 宇佐島는 지금의 海北道中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다 선생님은 宇佐島를 어디로 보니까? 어디로 그 比定을 하는지, 지금 제가 인용한 주석 2번에 보면, 宇佐島는 豊前國 宇佐郡 宇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북규슈 지방 아닙니까? 그러면 북규슈 지방으로 가는 길에 海北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海北은 일본열도 내에서 찾아야지,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찾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佐藤 : 宗像의 오키노시마(沖ノ島)는 遣唐使가 갈 때 중간에서 머물렀다 가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건너갈 때 들르는 섬이 지금의 오키노시마입니다. 단, 宇佐島라는 것은 이 오키노시마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만, 宇佐神宮이 있는 곳이라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濱田 : 글썄요, 저는 어느 쪽인지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宇佐島라고 하면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宇佐神宮 주변이 바다에 가까웠다는 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豊前國이라도 그곳은 해북에 이르는 중간, 도중의 지점이라서 宇佐가 해북이 아닙니다. 宇佐보다 더 앞 쪽이 곳이 해북이다, 라는 행로의 기술입니다.

노중국 : 海北으로 가는 도중의, 설혹 오키노시마(沖ノ島)를 宇佐島라고 하더라도, 해

북만 가지고는 이걸 한반도로, 해북을 한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濱田 :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거든요.

佐藤 : 오키노시마(沖ノ島)라는 섬은 여깁니다.

濱田 : 그러니까, 해북의 용례로서 이것을 제시하신 게 노선생님의 논리의 방증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주 불안합니다.

노중국 : 그 점은 저는, 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西服衆夷’라고 했을 때, 즉 서쪽으로 衆夷를 복속시켰다 할 때, 서에 대해서는 대개가 이즈모 지역, 그 다음에 吉備 지역과 북규슈 지역을 다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학계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즈모=出雲 지역하고, 吉備 지역하고 북규슈 지역하고 이것은, 구분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써는 《일본서기》에 吉備 지역을 西로 표현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서기》應神紀 22년 춘3월조에 보면 “응신 천황의 왕비가 吉備 출신인데 서쪽을 바라보면서 크게 탄식을 했다.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크게 탄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西服衆夷’의 西가 吉備나 出雲 지역이라고 정리가 되면, 규슈 지역은 海北으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서기》는 한반도는 海北으로 표현된 적은 없습니다. 거의 海西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海西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海北을 한반도로 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濱田 : 아니, 아니, 저는 임나일본부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생님이 여러 가지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 부정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임나일본부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무왕의 상표문은 동, 서, 북입니다. 다음은 북인데, 일부러 海를 넣고 있습니다. 바다를 넘어서 북쪽으로, 이 해북이라는 것은 바다의 북쪽이 아니라, 동쪽은 毛人を 치고, 서쪽은 많은 夷狄을 치고, 그리고 북쪽은 바다를 건너서 해북 95국을 평정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 상표문의 시점에서, 뭐 유감스럽지만 현재적인 한반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찢는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보면 425년의 왜왕 찬이 司馬曹達를 보냈을 때 倭隋 등 13인의 除正을 구했는데, 그 때 平西將軍, 征虜將軍, 冠軍將軍, 輔國將軍이라는 칭호를 구했습니다. 실은 이곳이 해북 혹은 서, 동을 정복했다는 일과 연결되는, 같은 일이 아닙니까? 平西將軍을 구한 그 근거는 서쪽 주변의 66國을 쳤다는 것이고, 征虜將軍을 구한 것은 동쪽의 毛人 55國을 쳤다는 일이 바탕에 있습니다. 55라는 숫자가 구체적인 수인지는 일단 접어두고, 그리고 輔國將軍, 冠軍將軍이라는, 즉 이른바 한반도에 통용하는 장군호를 이 시점에서 받으려고 한 것은, 역시 왜왕 찬은 이 시점에서 이른바 渡平海北 95國, 이에 해당하는 일이 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중국 : 예, 일본선생님들 한번 좀, 사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만, 《송서》 왜전을 빼고 나서, 규슈 지역을 서쪽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石井 : 西海, 서쪽 지역. 방위는 좀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서쪽이라고 써서 海西는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선생님은. 그런데 《수서》 왜국전에서는 607년에 수나라로 간 일본의 사자가 海西의 菩薩天使, 즉 바다 서쪽의 보살천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佐藤 : 저는, 오늘의 왜왕 무의 상표문을 둘러싼 이야기는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왜왕 무의 상표문은 왜왕 무가 어떻게 주장했느냐를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왕 무는 스스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문에서는 儀同三司, 開府儀同三司에 자신을 假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왕 무의 입장은, 왜만이 아니라 백제나 신라나 가야나 모한까지, 여러 軍事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왜왕 무의 입장에 서면, 平海北의 대상이, 왜왕 무가 자기 멋대로 한반도 남부라는 식으로 자기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또 다른 얘기고, 그것은 왜왕 무가 한반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기주장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경우는 같은 시대의, 稻荷山古墳의 鐵劍銘文이라든가 江田船山古墳의 鐵劍銘文이라든가, 그것을 《송서》 왜국전 이외의 사료와 대조하는 것으로 그 실체를 해명해 나가면, 또 이 상표문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왜왕이 7국에 대한 군사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토 선생님이 왜가 임의 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본서기》 당시의 역사의를 보면, 왜는 자기가 아주 우호적으로 통교하고 있는 지역을 대개 정복했다고 표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여기서 왜가 자칭한 倭, 百濟, 新羅, 任那, 加羅 등등 이런 것에서, 그 지명 중에 중국에서는 항상 백제를 배제하고 있는데도 일본측에서는 항상 백제를 넣는 것은, 자기들의 통교하는 도로에서 거쳐 가는 모든 나라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복해서 군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통교하는 지역, 즉 우호적인 통교지역 자체를 정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당시 일본 왕실의 허망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인식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구 : 또 아까 방법론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분명히 써 있는 것에 대한 해석도 구구한데, 아까 邊隸라든가, 또는 海北을 어디로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전부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왜왕 武가 七國諸軍事라는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마한이나 진한은 적어도 기록에 의하면 그 훨씬 이전에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신라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삼국사기》나 《일본서기》나 광개토대왕비문을 봐도 명백합니다. 백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배, 피지배 이런 관계보다는 우호라든가, 연합 관계에 있었던 건 명백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임나나 가야는 이게 또 神功紀 49년조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류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기 나오는 모든 7, 6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배하려고 했다든가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장했는가?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저는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노중국 : 이시이 선생님! 마지막.

石井 : 얘기가 한창인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만, 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계속해 주십시오. 모처럼의 기회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공부가 됐습니

다. 저도 왜국전을 다시 고찰할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노중국 : 이시이 선생님, 시마네 현에서 만납시다.

김현구 : 시간이 없어서 아까 너무 간단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장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중국 : 사토 선생님, 거기에 대해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佐藤 : 이것은 역시, 역사사료에 이렇게 써 있으니깐 그것을 지금부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선입관을 배제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오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邊業의 문제라든가, 祖禰의 문제, 海北의 문제는 또 의견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사료에 그렇게 써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역시 그럴 때, 예를 들어 《宋書》 倭國傳을 읽을 때는, 倭國王의 상표문을 읽을 때는, 한번 왜국왕의 입장을 이해하고, 왜국왕이 된 기분으로, 왜국왕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다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일본인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선생님들이, 고대사 연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생각한 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설득력이 있는 논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생님들도 혹시 자신이 일본인이었으면 어떻게 볼 것일까 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때, 혹시 이 자리에 중국의 선생님이 계시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의 선생님은 우리들의 소중화의식보다 더 강한 중화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 우리들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구요, 옛날의 고대 일본열도, 혹은 한반도 제국가가 가졌던 소중화의식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좀 더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濱田 : 왜 5왕의 여러 번에 걸친 將軍號 신청과 그 除正을 받았다는 이 외교는, 5세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기보다, 역시 4세기의 역사를 전제로 하면서 이것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황당무계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왜왕, 왜 5왕 나름대로의 예전의 역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역시 중국에서는 남조인 송나라와 북위가 대립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북위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왕이 이와 같이 사국이라든가 육국이라든가 주장하거나 받거나 합니다. 왜왕의 주장이 송나라에 의해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은 역시 遠交近攻이라고 할까요, 송나라에 있어서 고구려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어딜까 봤을 때, 왜왕은 고구려에 대항하는 자세로 외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왜왕의 상표, 장군호 신청이 쉽게 수리된다는, 중국본토의 이른바 宋과 魏의 이분된 남북조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중국 : 그런데 《宋書》 고구려전을 보면, 송과 고구려가 대립한 관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海北 문제를 꺼낸 것은 東征, 西服, 그 다음에 渡平일때, 征이나 服이나 平이나 정복했다는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 사실 海北을 한반도로 보면, 여기 엄연히 여러 나라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반도로 본다면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임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東征의 동쪽, 그 다음에 西服의 서쪽, 이쪽에는 사실 독자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 중의 하나로써, 그러면 海北을 한반도로 보지 않고 달리 볼 수는 없느냐? 그러했을 때 북규슈 문제도 해북 쪽을 한번 比定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태식 : 아까 김현구 선생님이 일본이 왜 七國諸軍事號를 將軍號에다 포함시켰는가 하는 얘기를 물었을 때, 사토 선생님이 아마도 일본의 小中華意識과 같은 자기중심적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넣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표현이 될 때, 그것을 한국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학자라면 '그런 주장이 일본의 주관적인 주장이었고, 그 사실성은 확실치 않다.'라는 견해가 좀 덧붙여졌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사토 선생님의 말씀에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없었고, 그것이 그냥 '당시 일본인들의 주관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순히 그것을 사료라고 해서 그대로 표현해 두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 없는 것

은 문제가 있으니, 학자로서는 뭔가 그것에 대한 해석 입장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오늘도 제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佐藤 : 아마 그 七國諸軍事를 ‘소중화의식’이라고 한 말이, 그 실체가 어떤지는 일단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김태식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식 : 예, 예, 맞습니다.

佐藤 : 소중화의식은 이시이 선생님이 계실 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자 생각했는데요, 이시이 선생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사료에 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인데요, 적어도 《일본서기》에 써 있는 내용은 8세기 전반에 일본 고대 국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왜 왕 무의 상표문도 아마, 중국에서 손질을 받지 않아서 《송서》에 기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세기 후반에 왜왕 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다른 역사사료, 재료를 사용하면서 《일본서기》라든가 상표문을 비판하면서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구 :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런 답이 나올 텐데, 김태식 선생님이 사토 선생님이 원래 얘기하신 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번역의 뉘앙스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 김태식 선생의 발언을 이해한 것으로써는 사토 선생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걸로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토 선생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사토 선생의 발언 중에서 명백해졌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 했고, 이번에 대답한 게 명백합니다. 사토 선생님의 의도는, 기록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아까 김태식 선생이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토 선생님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시, 문화의 차이지요.

김태식 : 제가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사실은 아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한 마디가 있으면, 이게 일본 학자들의 연구라고 해도 한국인들도 보는데, 한국인들의 가슴이 그런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 즉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濱田 : 역사학자가 논문을 써서 여러 가지 고증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일을 그 학자의 연구 책임 하에서 사실이라고 발표할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문서가, 이것은 가짜문서다 라고 하는 연구는 있습니다만, 어떤 기록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송서》 왜국전을 현재 일본과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의논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외국전이라든가 중국의 기록에서는 외교교섭에서는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인이 원하면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백제인이 원하면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遠交近攻이라는 것이 있어서, 먼 곳, 이웃보다 먼 곳에 관한 일, 혹은 잘 모르는 곳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기록이 남아버린다는 일반적인 경향은 있습니다.

노중국 : 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이시이 선생님이 계셨으면, 같은 5세기여서 여러 가지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시이 선생님 발제 속에서 하나 나온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將軍號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지위, 신분을 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에 사실 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 東城王 때 입니다, 고구려가 征東大將軍인가 이렇게 승진한 걸 듣고서 백제도 자기를 장군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시이 선생님이 계시면 적극적인 답변을 들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세기 문제는 주로 제가 發題를 했던 自稱將軍號의 성격 문제, 그 다음 邊隸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海北이 과연 꼭 한반도를 지칭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가 주로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일본 쪽 연구는 굉장

히 많지만, 한국 쪽 연구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것은 이번이 아주 좋은,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송서》 왜국전에 충실해 가면서 사료를 해석을 했을 때, 저는 이 海北 같은 경우도, 기왕에 일본에서 통설화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재고해 볼, 재검토해 볼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邊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좌담회 녹취록 제1부 말미의 石井 위원의 附記 참조)

佐藤 :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선생님이 마지막에 발언하셔서 그것으로 끝나면, 이시이 선생님께 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중국 : 그 부분만 포함시키지, 이시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이시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회의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佐藤 : 혹은 이시이 선생님이 나중에 보충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 부분을 8월 달에, 이즈모에서 좀 의논해도.

노중국 :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지요, 각각 한사람씩 한번 말씀하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김현구 : 사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얘기가 길니다만, 아까 사토 선생님이 전망에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니, 한국에서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과 또 그 대신 한국의 학자들도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사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망에서 발표하려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만, 저도 일본에서 일괄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즉 일본에서 일괄적인 교육을 받아서 《日本書紀》나, 《宋書》나 《三國史記》나 廣開土大王碑文을 그냥 읽었다면 과거에 스에마쓰 선생님이 얘기하던 한반도 남부 경영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보면 아주 당연한 모순을 일본의 학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쓰다 선생이나 이케우찌 같은 분들이 한반도 남부 경영의 기둥이 되는 대부분의 기사들에 대해서 이것의 주체를 왜로 보아선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찍이 하면서도 총론적으로는 한반도 남부 경영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는 대단히 모순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론적인 기사들은 전부 부정하면서 그 각론위에 성립된 총론은 거꾸로 인정하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그 모순을 일본 학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결국 그 한반도 남부 경영이라고 하는 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영하는 부분, 하나는 미마나가 멸망했을 때 그것을 구원하는 부분, 하나는 미마나 문제를 종결짓는 김춘추의 도일문제,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 경영이라던가, 미마나가 멸망했을 때 미마나를 구원하는 문제라던가 또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 주체를 백제로 봐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백제 경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도 일본 학계를 지금 대표하신다고 할 수 있는 사토 선생님이나 하마다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또는 일본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중국 : 예,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마지막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순서는 없습니다.

濱田 : 김현구 선생님의 말씀은 다음 좌담회까지 포함해서, 매듭 말씀으로 아주 적당한 인사말로써 들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역사를 다시 읽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논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설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금후는 고대 일한관계사, 저는 조일관계라든가 한일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가급적 일본 속에 있으면서 조선사의 입장, 한국사의 입장에서 대외관계를 생각한다는 시점을 확립하고자 매일 바라면서 사료를 읽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료에 입각한 실증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 근거로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증주의가 항상 옳다, 정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제1회 좌담회였는데요, 자 이것을 녹취해서 정리하려면, 그것은 각자 논문을 쓰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시간도 걸리고, 각각 발언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정해야 하니까요, 아주 골치가 아픈, 지금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활자로 하지 말고, 테이프를 CD로 녹음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다음의 심포지엄, 토론, 좌담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중국 : 그 다음 또, 자유롭게 또.

佐藤 : 이시이 선생님이 오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곳은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시이 선생님도 아마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일본에 있어서의 최근의 연구를 보시고, 비판해 주셨으면 다행입니다.

노중국 : 예,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아마 십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 한 시간하고, 산보까지 한 시간 반 정도 빼고, 6시까지 장시간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중간 중간에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만,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던 기회는 이번이 본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들은 또 한번의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다루기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石井委員 座談會 記錄 補訂

* 5세기 좌담회 녹취록 말미에 【附記】를 붙인다.

【附記】 좌담회 기록 365쪽 노중국 위원의 발언에 관련하여

좌담회에서 제가 도중에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제 보고논문에 관해 노중국 선생님께 서 하신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시이 선생님 발제 속에서 하나 나온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將軍號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지위, 신분을 논할 필요는 없지 않겠으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에 사실 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 東城王 때입니다, 고구려가 征東大將軍인가 이렇게 승진한 걸 듣고서 백제도 자기를 장군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중국 위원의 지적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중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있다고 하시는 ‘고구려가 征東大將軍이라는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백제도 자기들의 將軍號를 상위에 올리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에 대해,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거듭 읽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의 기사로서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東城王 6年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입니다.

六年(484) 春二月 王聞南齊祖道成册高句麗巨璉爲驃騎大將軍 遣使上表請內屬 許之

여기서는 고구려왕이 南齊로부터 驃騎大將軍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왕이 ‘遣使上表하여 內屬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면 노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사에 해당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백제도 자기들의 將軍號를 상위에 올리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사인지도 모르며 다시 노중국 위원의 교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東城王 6년 2월조의 기사는 중국 사료에 보이지 않는 《삼국사기》 독자의 기사로, 일찍이 坂元義種氏가 논하였습니다. 이 시기 백제왕의 在位를 둘러싸고는 혼란이 있으며 《삼국사기》에서는 동성왕 6년이 동성왕에 의한 첫 번째

南齊遣使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기사 의미는 고구려왕이 齊로부터 驍騎大將軍에 임명된 것을 안 백제왕이 처음으로 南齊에 遣使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백제의 南齊遣使의 계기가 고구려왕의 敍任에 있었음을 말한 것이라 이해되지만 검토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4~5世紀 日韓關係 略年表’ 말미의 주에 언급했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盧重國 委員 座談會 追記

【위의 附記에 대한 追記】 石井 委員의 座談會記錄 補訂에 대해

石井 委員은 좌담회 녹취록을 읽은 후 내가 石井 委員의 보고문에 대해 말한 다음의 내용 즉 ‘東城王代에 高句麗가 정동대장군으로 승진한 것을 듣고 자신의 장군호도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것에 대해 현재의 자료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주었다. 石井 위원의 지적처럼 백제는 장군호를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內屬을 청한 것이며 고구려왕에게 수여된 장군호도 征東大將軍이 아니라 驃騎大將軍이다. 이것은 내가 잘못 기억한 것이어서 여기서 바로 잡는 바이다. 다만 고구려가 驃騎大將軍으로 임명되자 백제가 內屬을 청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장군호가 가지는 국제적 지위와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제1분과 좌담회 제2부

일시: 2004년 10월 30일 토요일 10:00~17:50

장소: 한국 쑤주 東方觀光호텔 5층 에메랄드홀

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

김태식 :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해야 될 것은 6세기 한일관계에 대한 좌담회입니다. 김현구 선생님과 사토 선생님 두 분이 發題文을 해 오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佐藤 : 그럼 좀.

김현구 : 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식 : 손님부터 먼저?

김현구 : 아니에요, 손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佐藤 : 몇 분간이고, 화제 제공은 몇 분이라는 순서를 정하시죠.

김태식 : 제한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입니다. 한국어 회의 자료의 4페이지입니다.

金鉉球 위원의 發題

김현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기에 한일관계를 전하는 기본사료로써는 한국측의 《삼국사기》와 일본측의 《일본서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500년조에 倭人이 長峯鎭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는 기사를 끝으로 왜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서기》에는 당시의 양국관계를 보

여주는 다수의 기사가 보입니다. 따라서 좋은 싫든 6세기의 한일관계는 《일본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濱田 : 김 선생님의 원고에 대해 우리들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 선생님이 혹시 원고대로 읽으실 거라면 그 통역은 안하는 걸로 할까요. 시간 절약이 되니까.

김태식 : 번역본이 있습니까? 예.

김현구 : 6세기의 한일관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저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간의 교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 국가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다른 교류들의 성격도 분명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에는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백제와의 관계가 아니라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지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의하는 한,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내용은 《일본서기》 편자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어째서 《삼국사기》에는 6세기의 왜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은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또 《일본서기》는 백제계 사료를 중심으로 가야계 사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서기》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계 사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서기》에 반영된 백제계의 사료를 제외하더라도 당시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가 종래의 통설과는 달리,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다는 《일본서기》의 내용과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 임나계 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제계 사료가 중심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일본서기》에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6세기 이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왜에 관한 기사가

72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야와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10개이며, 대부분은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되어있는 반면,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은 부정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가 앞서기는 하지만 5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사기》의 내용도 《일본서기》에 보이는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추구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사료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을 전제로 추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6세기의 한일관계는 먼저 현존하는 《일본서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삼국사기》에는 왜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가. 또는 왜 가야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는가를 검토해야지, 왜와의 관계가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백제계 사료가 중심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본서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부정함으로써 기존의 견해들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듯 한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현재의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EU, ASEAN, NAFTA 등 지역적 협력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도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대한일관계를 새롭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처음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연구 성과의 벽이 높고 두터운데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와의 관계에서만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근대사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津田나 池内 등이 신공기 49년조의 가야 7국 평정이나 동 62년조의 대가야 재건, 현종 3년조의 紀生磐宿禰의 반란 등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반도 남부 경영의 기둥이 되는 기사들의 주체를 왜로 보면 모순투성이로 성립될 수 없다고 각론적인 기사들은 부정하면서도 총론적으로는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남부 경영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반도 남부 경영의 기둥이 되는 기사들의 주체를 왜로 해서 성립될 수 없다면 당연히 한반도 남부 경영이라는 총론도 의심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한반도 남부 경영에 대한 논의에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일본학계가 쓰다나 이케우치의 논리가 모순되었음을 깨닫거나

각론적인 신공기 49년조의 가야 7국 평정이나, 同 62년조의 대가야 재건, 현종 3년조의 紀生磐宿禰의 반란 등의 주체가 백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한일관계의 연구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일관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일본서기》나 《송서》, 광개토대왕비문, 《삼국사기》 등에 대해서 일본학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분은 명실 공히 이 분야를 대표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일본사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고대한 일관계사를 우리가 검토하는 취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한반도 남부 경영론의 기동처럼 여겨지던 각론적인 기사들의 주체가 야마토 정권이 될 수 없다는 쓰다나 이케우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총론의 재검토나 《일본서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가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처럼 여러 각도에서 정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 자신도 자신의 주장에 모순이 없는지 여러 선생님들의 충고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숙고하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김태식 : 그림 사토 선생님! 잠깐만요. 사토 선생님 번역문이?

佐藤 : 오늘 나누어드린 이쪽 메몬데요.

김태식 : 이게 기존에 메일로 보내셨던 것과 달라졌습니까?

佐藤 : 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김태식 : 그러면 통역을 ...

佐藤 위원의 發題

佐藤 : 지금 김현구 선생님의 아주 솔직하신 말씀을 들어서 감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제 제공은 6세기 한일관계사를 둘러싸고, 세 가지 정도의 話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김현구 선생님의 보고도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김 선생님의 연구 성과라고 이해하였습니다. 6세기의 일본열도와 한반도와의 주요 사료인 《일본서기》는 8세기 일본 올령국가의 입장에서 편찬된 것이며, 그것을 사료비판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히 전쟁 후의 일본고대사연구, 戰後の 특히 최근의 일본고대사연구에서는 《일본서기》에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입장의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김현구 선생님은 일본에서의 연구에서 한반도 남북경영론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구자로서는 이제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현구 선생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은 일본의 고대사연구자가 《일본서기》를 이용해서 당시의 일본의, 왜국과 가야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연구할 때 《일본서기》를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역사관으로 자의적으로 《일본서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역시 객관적으로 사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쌍방의 연구자들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자리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당시의, 6세기의 일본, 왜와 가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어서의 가야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가, 상당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경상대학교의 조 선생님(趙榮濟)께 고고학의 입장에서의 가야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고학적 성과를 파악한 가야지역의 역사적 전개, 전망에 입각해서 《일본서기》를 다시 한 번 사료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화제 제공의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토 문자 사료와 고고학적인 지견을 어떻게 파악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야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뿐만이 아니라 5·6세기의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 문제와, 혹은 6세기의 함안의 성산산성의 목간 등, 새로운 역사자료가 출현했습니다. 이미 《일본서기》라는 문헌사료만으로 이 시대의 한일 관계사를 그려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이라는 연구도 앞으로 진행시켜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주로 가야지역에 있어서의 고고학적인 조사 성과를 파악하면서 종합적으

로 이 시대의 한일관계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학과 고고학과는 학문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는 새로운 역사자료를 역사학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한일관계사를 종합적으로 조립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측에서 자기들이 형편에 맞는 부분만 고고학의 성과를 빼어가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역사학과 고고학이 서로의 학문 방법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들은 그런 방향의 연구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세기 한일관계사에 관해서 당시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갈 것인가를 화제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당시의 6세기 한일관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다원적이며 쌍방향적인 관계였고, 그것을 複眼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세기의 일본열도,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탐라, 왜 등 제국이 다원적으로 존재하였고, 각국의 국제관계는 중국의 남북 왕조도 포함해서 다방면 방위로 전개하고 있어서 두 나라 관계만으로 정리할 수 없는 다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구 선생님도 6세기 한일관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로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나라 관계만으로는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二國間 관계만을 다루어 보아도 정치적인, 문화적인 강하고 약함에는 무관하게, 두 나라 사이의 교류라는 것은 한 방향의 영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쌍방향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현대로 말하자면 군대를 파견해서 침략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승리한 쪽의 나라도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는다는, 쌍방향의 관계가 외교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국간, 이국간 교류의 다원적인 모습,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국간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더 다원적으로 파악할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지금 발제내용을 보면 김현구 선생님께서는 《일본서기》를 기존과 달리 백제와 왜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해서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토 선생님께서는 《일본서기》의 사료문제, 그리고 새로 출토된 문자자료 문제, 고고학적인 유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원적인 국제관계 이런 것을 인식해서 새로운 관계사를 연구해야 된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토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는 왜의 남한경영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연구자 중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에 입각해서 《일본서기》를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러한 것이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가야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면, 가야지역을 일본이 오랫동안 점령을 했다는가 지배를 했다는가, 그러한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계의 연구 경향과 달리, 우리의 모임의 기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일부 교과서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러한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일본을 여행하다보니까 각종 안내문에 신공황후가 한반도를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다가 가져온 것이라든가, 이런 설명문이 너무 많아서, 아까 김현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배웠으면 그것을 기정사실처럼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일본의 고대국가 발전도 한반도의 점령이나 지배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지역과의 아주 긴밀한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를 토대로 해서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일본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역사인식이 아닌가 하는데, 사토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佐藤 : 그렇군요. 두 가지만 바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식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는 일본의 학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동향이 있어서, 저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교과서에 반영되는 학계의 연구동향 속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의 자유라는 것으로 그러한 견해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전쟁 전과 같은, 혹은 전쟁 후와 같이,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경영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견해라는 것은 최근 단계에서는 그다지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마 김태식 선생님은 아마 신사 등에 있는 설명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또 그 신사를 믿는 사람들이 그 전승을 썼다는 것으로, 그것 역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해서 실태가 밝혀지면 그것이 또 반영될 것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는 단군신화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승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하는 것은 좀,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공동연구의 자리에서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은 이 연구회의 주제라고. 그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충하면, 최근 신공황후를 믿는 신사의 설명판에서도 전쟁 전이라면 ‘삼한정벌’을 했다고 써 있던 것을 요즘 간판에서는 한국과 문화교류를 하였다는 식으로 쓰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데요, 첫 번째와 중복되고, 김태식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의 새로운 고대 한일관계사를 향해서의 얘기와도 관련이 있는 화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經營’이라는 말의 실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지배, 점령, 영향력, 군사적 지배라는 말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어떤 실태였느냐 하는 게 아니라 말 스스로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연구회에서 ‘主導’라는 말도 나왔고요, 人力賣買라든가 傭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각각이 실태가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지배인지, 경영인지, 점령인지, 영향력인지, 용병인지, 인력매매인지를 밝히고, 공통된 인식을 가진 후가 아니면 의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김태식 선생님의 의견 중에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濱田 :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6세기의 한일관계사인데, 사회자인 김태식 선생님이 전번에 하신 신공황후 49년조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토 선생님의 말씀은 오후의 보고에도 관련하기 때문에 화제 제공자인 김현구 선생님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본서기》와 6세기 한일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료비판 문제, 혹은 현대에서 고대사를 생각하는, 현대에 제약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불식하고, 6세기 한일관계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개념을 좀 더 깊게 의논해도 될 것 같습니다.

《日本書紀》에 임하는 자세

김현구 : 하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토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국 사토 선생님께서 6세기의 한일관계를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또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다원

화된 이런 분야, 또 이국간이 아니라 다국적인 이런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은 대단히 타당한 얘기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만 얘기하니까 옛날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교류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틀은 과거에 스에마쓰씨를 비롯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기본적으로 통설적인 지위를 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서, 사토 선생님도 지적했지만, 그 견해가 일치될 수 없다는 점은 한일학계에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를 있는 그대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아까 사토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새로이 발굴되는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경향이 학계에서 지금 주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틀이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묵시적으로 기존의 틀이 그냥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기존의 스에마쓰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틀이나, 또는 그 뒤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서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 못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서기》에 대해 지금까지 스에마쓰씨가 얘기하던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거기 에다가 고고학적 성과를 받아들여야지, 기본적인 사료비판도 하지 않고 고고학적 성과를 거기에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임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이렇게 인식되어 왔지만, 《일본서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명백히 백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적어도 이런 것은 고치고 거기다 고고학적 성과를 덧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조금 길게 됐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사토 선생님의 경영이라든가, 지배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정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에 있던 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6세기에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것처럼 되어 있는 왜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사토 선생님이 제안한 그 문제는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石井 : 예, 그러면 하나만. 지금 6세기에 관해서 두 분께서 화제제공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예를 들어 《일본서기》,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는 기본사료에 대한, 이에 향할 때의 자세라는 것에 대해 다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선 김현구 선생님의 논문 및 오늘의 보고에서, 요컨대 《서기》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우선 《서기》 그것 자체에 써 있는 것을 허심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서 사료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고고학사료 등을 참고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을 구축해 간다. 그런 자세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서기》의 기사에 대해서 이것 …

김현구 : 조금 의미가 다른데 … 말하자면 《일본서기》에 대한 사료비판을 하고 거기다가 고고학적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역 : 아니오, 그건 사토 선생님에 관한 얘깁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시이 선생님은 김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본서기》에서 어떻게 써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사료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石井 : 그럴 때에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고학 등의 사료, 그런 것들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까 사토 선생님도 걱정하셨는데, 《일본서기》를 이용하지 않는 학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고학에서 진전이 보이는 시기니까, 다시 《일본서기》를, “이것은 이상하다”, “이 기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일본서기》를 읽는 게 아니라, “원래 《일본서기》에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 그것을 우선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제 자신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이번에 연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시 기본에 돌아간다고 할까요, 다시 허심으로 각각 사료를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을까, 저

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歴史教科書에서의 記述

노중국 : 《일본서기》를 비롯한 기본 자료를 허심탄회하게 보자 하는 그 말씀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상황과 연관해서 사토 선생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토 선생님 발제를 하시면서 현재 《일본서기》에 적혀있는 대로 고대한일관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른바 ‘남한경영설’을 논하는 연구자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 속에서는 그러한 남한경영설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62년에 가야가 멸망했는데, 《일본서기》에는 “임나 멸망”으로 나오는 거지요. 즉 이에 대해 교과서적인 표현에서는 “왜가 한반도 임나에서 철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여러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은 여러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얘기들이 교과서에는 그대로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계 논의와 실제 교과서 상에서, 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돌릴 수 있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石井 : 사토 선생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좀 노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없나요. 학회에서의 상황이라는 게 모두 교과서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나요.

노중국 : 물론 학계의 견해가 100%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과서에서는, 문제가 됩시다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근대까지는 국정 교과서로서 하나입니다. 그다음 근현대사는 검인정 교과서로서 지금 한 5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검인정교과서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도 우리 학계에서는 가능하면 검인정 교과서로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濱田 : 이것은 역사교과서 검토위원회가 아니라, 4·5·6세기의 한일관계를 우리가 사료에 의거하면서 검토해 온 것으로, 이에 또 의거해서 금후의 한일관계사의 방향

을 어떻게 정해갈 것인가 하는 의논에 집중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긴 시각으로 보면 지금 노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극히 작은 것으로 변해가고, 사라져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느 쪽의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도, 혹은 역사참고서, 역사서적에서도 각각 현대에서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들은 역시 연구자라고 할까요, 역사 사료를 극히 우선적으로 이용해서 연구할 입장이므로, 그 방향에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노중국 :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사토 선생님이, “근래에 와서는 任那經營說과 같은 것을 학계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학계 연구 성과들이 결국은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는 그것은 즉, 임나경영설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을 땐 학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교과서 상에서는 “562년에 군대가 철수했다”, 그럼 그 이전까지 군대가 계속 임나에 남아 있었다, 이런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 철수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학계 연구 성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대다수의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하니까, 양자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 건지? 그래서 한번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佐藤 : 발언해도 됩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과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노중국 선생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서기》를 그대로, 한반도남부경영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을 하지 않은 한, 안하는 상태로 그런 견해를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단 아까 이와 아울러 말씀드리듯이, 당시의 왜국과 가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영라든가 지배라든가 점령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군사적 지배라든가 관계라든가, 여러 수준에서의 실태로써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계가, 제일 《일본서기》적인 경영지배에서 가장 《일본서기》적이지 않은 열은 관계로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학설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아까 김현구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바르다”는 결론은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여러 학설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검토한다, 사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이 연구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판 같은 설이 아직 없다, 아직 구축된 바가 없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김현구 선생님은 옛날의 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그것은 표리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최근 연구에서는 스즈키 야스타미 선생님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하마다 선생님, 이시이 선생님, 이 시대의 한일관계를 다루신 최근의 연구 성과도, 혹은 개설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단사(講談社)의 《일본의 역사》라든가, 혹은 요시카와 코분칸(吉川弘文館)의 《일본의 시대사》라든가, 최근 동경대학출판회에서 나온 《일본역사강좌》였나요, 그곳에 보이는 설은, 그것이 결정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본의 연구현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이는 견해는 반드시 예전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데요, 아까 김현구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김현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역시 《일본서기》를 어떻게 사료비판할까 하는 점을 문제로 설정했는데요, 역시 《일본서기》에 써 있는 내용을 부정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역사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 없이 역사관이라든가,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근대적인 관념으로 《일본서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일본서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되는 역사자료,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할까 할 때, 저는 역시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라든가, 출토문자자료 등에 힘입을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濱田 : 김현구 선생님이 《일본서기》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라는 것을 어떤 수법으로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출토 문자 사료라든가, 대응하는 사료가 있으면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객관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아주 어려워서, 한국에서 제일 《일본서기》를 잘 읽으시는 김현구 선생님, 이 부분을, 이런 것이 객관적이라는 수법을 가르쳐 주시면 참고가 되는데요.

《일본서기》를 인용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

김현구 : 아까 사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을 또 제가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시이 선생님이 사실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사토 선생님과 제 생각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서기》를 과거에 해석하던 것처럼 그렇게 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서기》를 지금 잘 인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까 이런 지적을 하셨고, 그 방법으로써 사토 선생님은 고고학이라든가 木簡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과거의 《일본서기》에 대한 통설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게 잘못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서기》를 인용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는 과거 것이 그냥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의 생각입니다.

즉 과거의 통설이 있는데 그걸 인용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서기》를 더 이상 인용 안하려고 함으로써 과거의 통설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스에마쓰 씨의 통설이 있었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인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바탕이 된 《일본서기》도 인용하지 않거나 인용을 피하는 것으로 인하여 반대로 옛날의 통설이 그대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또는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石井 :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반대로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김현구 :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 그래서 저는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통설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묵시적으로 묵인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일본서기》에 대한 과거 인용이 잘못됐던 것을 먼저 바로잡고 고고학적 성과라든가, 목간 같은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서기》 자체에 대한 사료비판을 먼저 해야 한다. 조금 얘기가 길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이 “그럼 그런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일본서기》를 가지고 과거에 스에마쓰 說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일본서기》만 갖고 얘기를 하면 임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관계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백제와의

관계도 과거에 지배, 복속관계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백제는 군사원조가 아니라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야마토 정권은 軍援을 제공하는 이런 관계였지 않느냐, 이런 것은 현재 적어도 《일본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느냐 이런 얘가지요.

《일본서기》 편찬과정의 검토가 필요

濱田 : 그래서 《일본서기》도 말입니다, 4세기 부분, 5세기 부분, 6세기 부분, 7세기 부분이라는 식으로 아주 긴 시간에서의 한일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설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4세기, 5세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현구 선생님의 보고를 듣고,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에서, 왜국과 이렇게 임나, 가야 여러 제국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김현구 선생님이 “그 가운데 지금의 ASEAN이라든가 EU의 관계, 동아시아 세계도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지향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적인 협력, 바로 고대사가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제, 그리고 가야제국, 왜국, 이들은 지역적인 협력관계로, 그 배후에는 신라 혹은 고구려의 대립이 있었고, 그 밖에는 넓게 중국 남북조, 5호 16국, 그런 틀 속에서 백제, 가야제국, 왜국과의 지역적인 협력관계, 그러한 것이 고대사회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제 인상입니다. 인상이라고 할까, 결론 같은, 그 동안 제가 여러 문헌사료를 읽으면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안 저는 《일본서기》, 저도 일찍부터 《일본서기》를 읽었는데요, 다시 4세기, 5세기의 한일관계를 읽어봤는데요, 역시 《일본서기》를 비판할 때는 《일본서기》의 편찬과정이라든가 재료, 이런 것부터 검토해 나가야, 기사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氏族에서 나온 《舊事本紀》, 혹은 《帝紀》, 《百濟三書》, 이와 같은 것들이 재료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신기하게 느낀 것은, 사람과 個所는 괜찮은데요, 인물이 얘기한 내용까지 깔끔하게 한문조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료는 무엇인가? 일본에서 5세기, 6세기, 문자자료가 확실하게 남아 있었는지, 혹은 씨족의 전승기록, 혹은 역사 사항의 기억이 이야기로써 구전되었다가 어떤 시기에 문자화되었는지, 이와 같은 부분이 제게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의 이와 같은 편찬에 관한 연구란 역사학 이외의 분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화에 대해서는 ‘一書에 말하기를’ 하고 하니까 《일본서기》에 있어서의 一書의 연구라는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서기》의 고대한일관계사

기사의 편찬자료, 편찬과정이라는 것을 우선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객관적인 검토라는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佐藤 : 저도 이번의 김현구 선생님의 화제제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서기》에 대해 이시이 선생님,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서기》 자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편찬과정의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일본서기》의 기사가 가지는 모순을 찌르는 것으로 《일본서기》에 의하여 《일본서기》를 사료비판하는 작업은 해야 한다, 역사학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일본의 율령, 고대 율령국가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7세기를 예로 들면 《일본서기》의 사료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는 저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木簡에 의하여 《일본서기》의 기재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역사 사실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것은 목간뿐만이 아니라 각지 7세기 유적을 발굴하는 것으로, 특히 목간으로 《일본서기》에 써 있는 기사의 실태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간과 금석문 등 출토사료라든가, 《일본서기》 이외의 문헌, 중국 사료 등으로 6세기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다음에 말씀드릴 바와 같은 사료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본서기》에 6세기의 일로써 기재된 ‘任那日本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7세기대의 같은 시대의 사료, 중국사료, 금석문과 목간 등 7세기의 같은 시대의 사료에 의해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긴 것은 7세기 후반에 생겼다는 것이 현재에는 많은 고대일본사 연구자 사이의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임나일본부’라는 시설의 이름 자체는, 일본이라는 말은 《일본서기》 편찬과정에 주어졌다는 것이 상식화될 것입니다. 저는 역시 그, 사료비판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될 역사사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일본서기》 자체를 조사하는 동시에, 제가 그 이상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고학적인 조사 성과와 출토 문자 사료에 의해, 같은 시대의 사료에 의해, 점차 6세기의 유물자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6세기대 《일본서기》의 사료비판을 앞으로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고, 그 기대를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過去の通説을 고치기 위해서는 史料批判이 먼저 이루어져야

김현구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마다 선생님이나 사토 선생님 말씀은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또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서기》를 이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과거 《일본서기》를 잘못 해석해서 세운 통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자 사료를 이용해서 《일본서기》를 비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선 《일본서기》에 써 있는 그 자체에 대하여 과거에 기본적으로 잘못 봤던 것을 비판하는 것이 선결 문제, 즉 먼저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예로 제가 아까 《일본서기》를 갖고 얘기하면, 임나와의 관계보다는 백제와의 관계가 중심이 됐고, 백제와의 관계도 지배, 복속적인 관계보다는 선진문물을 주고, 군사원조를 주는 관계였다. 그리고 기사 하나를 예를 들면, 신공 49년조 만해도, 《일본서기》만 갖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밀하게 보면 백제얘기지 일본얘기는 아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비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위에서 그럼 왜 백제 것이 일본 것이 됐는가, 또 왜 7국 평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가, 이런 것은 이제 편찬 과정이라든가 기타 검토를 통해서 2차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濱田 : 처음의 김현구 선생님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주 실례가 되지만 굴절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본서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암묵으로 그 통설을 인정하게 된다는 생각이시군요. 이것은 통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하나로 묶어서 《일본서기》라고 말씀하십니까만 《일본서기》 중에서도 교과서에 사용하는 학설 중에서는 예를 들어 고구려에서의 학자가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의 도래라고 할까요, 그런 《일본서기》의 내용은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서기》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300년, 400년간의 한일관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이 이 시대 중에서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구 : 아까 말한 것이 조금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마다 선생님하고 사토 선생님께선 편찬 과정이라든가, 다른 자료가 있어야지 《일본서기》를 비판하지, 지금 있는 대로 인용하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먼저 그 이전에 《일본서기》 자체가 어떻게 써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한 예로 신공 49년조 같은 것을 들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쓰다나 이

케우치 선생이 그게, 주제를 일본으로 해서는 모순덩어리다 하는 설명을 했지만, 나는 웬만한 상식을 갖고 그 기사를 보면, 그 얘기가 백제측 얘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을 먼저 하고 그 내용에 왜 백제 것이 일본 것으로 되어 있는가, 또는 평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맞는가, 하는 것은 그런 편찬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사 자체를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예,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 마디씩 말씀하시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사토 선생님? 김현구 선생님? 아 또 노중국 선생님?

노중국 :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주제가 고대 한일관계를 연구할 때, 《일본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가, 이게 주제가 되었는데요. 사토 선생님은 《일본서기》를 객관적으로 사료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구 선생님은 그러한 측면에서 종래의 임나 중심적, 가야 중심으로 봤던 인식을, 백제 중심으로 보자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려질 수 있는 역사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구 선생님이 백제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일본 선생님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

濱田 : 그것은 사토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쌍방향적이라고 할까요, 관계사니까. 관계사라는 것은 백제사의 입장, 백제사를 생각할 때는 백제의 시각에서, 백제가 왜국과 이 시기 왜 이런 교섭을 했는지 하는 방향에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왜국으로서는 왜국사, 왜국의 입장에서 이 시기 이런 교섭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파악방법이 있습니다. 김현구 선생님의 제안은, 《일본서기》는 아주 백제관계 기사가 많습니다. 그것을 백제사 입장에서 읽을 수 있다고. 혹은 읽으면 이와 같은 한일관계사가 성립된다고 하는 제안, 제안이라고 할까요, 시사입니다. 쌍방향으로 성립된다는 것이군요.

김태식 : 네, 사토선생님.

佐藤 : 저도 큰 시야에서 보면, 저와 김현구 선생님 사이에서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서기》에 써 있는 내용은 8세기 초의 일본 율령 국가의 역사인식, 그 바탕이 돼 있는 것은 백제계 사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그 8세기 초의 일본 율령 국가의 역사인식을 신용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사료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용해도 되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김현구 선생님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또 《일본서기》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현구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후의 일본고대사연구는 《일본서기》를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김현구 선생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통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정말로, 예전에는 스에마쓰 선생님의 견해가 압도적인 결정판의 논지로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여러 의견들이 병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것이 결정판의 논지라는 것이 없다는 일에 대해 비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연구 상황에서 보면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 상황에서 말하자면 현 단계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사 통사 책이, 혹은 강좌 책 등에서 각각 전문가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견해가, 좀 폭이 넓긴 하지만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밖에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식 : 그러면 이제 또, 오후에 시간이 더 있거든요. 6세기에 관련된 좌담회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지금까지 논의되면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대해서 약간 좀 논의가 모자랐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한일관계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쉬었다가, 이따가 3시가 되나요? 3시에, 아 3시 반인가요? 아 3시죠. 이따 오후 3시에 다음 회의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새로운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위한 좌담회

김태식 : 이번에 중점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앞으로 고대한일관계사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좋겠는가, 공동연구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망, 문제점 이런 것을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토 선생님께서 發題文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사토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佐藤 위원의 發題

佐藤 : 오전 중의 좌담회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 포함됩니다만, 일단 화제제공자로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어서, 첫 번째는 고대 동아시아 교류시장의 개념의 공통화의 문제입니다.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이 각각 연구자들에 의하여 각각의 의도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개념도 연구자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 중의 내용에도 있었습니지만, 경영이라든가 지배라든가 점령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군사적 지배라든가 관계라는 개념이, 二國間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개념이 각각 의도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人力賣買라든가 傭兵의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실태를 다양하게 표현할 경우도 있고, 각각 말이 다른 실태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라는 것은 학문으로써 할 수 없는데요, 대화할 때의 공통적인 용어를 서로 확인한다는 일이 앞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간에서의 역사공동연구인데, 고대, 더 넓은 범위에서, 예를 들어 일본, 한국, 중국이라는 넓은 범위로 공동연구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동아시아, 다원적인 국가간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동아시아 제국의 교류를 검토할 때, 역시 중국을 제외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는 한일만이 아니라 한·일·중, 혹은 기타, 관계하는 제국이 공동연구의 자리에 앉아서 다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새로운 출토 문자 자료와 발굴조사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공동 연구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목간 등 새로운 출토 문자 사료나, 혹은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 혹은 왜계 유물인가요, 새로운 발굴조사 성과는 한일 양국에게 새로운 사료입니다. 그러한 양국관계사의 새로운 사료를 양국의 연구자가 공동연구 하는 것으로 금후 연구의 대화가 더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역사자료가 갖는 정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그 방법론의 과정에서 공동의 자리에서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상대학교의 조 선생님(조영제)의 말씀을 들면서, 조 선생님도 고고학적으로는 문화교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헌사료에 보이는 국가간의 외교와 정치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의미에서의 문화교류, 이것은 토기와 무기의 작성방법도 그렇습니다만, 한자문화 수용의 문제, 불교문화 수용의 문제 등, 그러한 문화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앞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미래지향의 연구의 자리에서는 역시 고고학연구자도 함께해 주었으면 하고, 혹은 불교사 연구자라든가 미술사 연구자라든가, 양국의 국어학 연구자 등이 자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역사공동연구는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입구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번 노력 위에 다음 세대가 더 우호적인 공동연구를 계속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植 위원의 發題

김태식 : 예, 그러면 저는 발제문을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데, 사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이제 2년 반 동안 해 온 공동연구를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동안 일본측 여러 위원 선생님들과 같이 공동연구한다고 하면서 자주 만났고, 일본 유적도 보고 한국 유적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현구 선생님처럼 일본사를 전공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노중국 선생님이나 저같이 한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일본고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한일관계사로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측 위원분들과 말씀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에 못지않게 일본측 선생님들도 우리 한국고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잘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것은 기간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고대사, 일본고대사에 대한 기존의, 최근의 연구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가진 다음에 이러한 한일관계사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말이 잘 통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공동연구가 이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장기간에 걸치고, 좀 더 넓은 분야에 걸쳐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급한, 그러니까 연구 성과를 시급하게 이렇게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위에서라야 사토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서,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라든가, 한국, 일본, 중국이 같이 연구를 한다든가, 발굴 조사 성과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마다 선생님?

濱田 : 의견이라고 하기보다 제안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진행시킬 건가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용어라고 할까요, 고대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역시 근대 역사 속에서 생겨온 개념을 사용한다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군요. 특히 국가간의 외교사라는 것은 바로 현대로 직결시켜서 얘기되는, 이해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운 문제라고. 아까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남부경영설, 혹은 이 경영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시대를 경영이라고 하는지 좀 어렵습니다. 혹은 지배, 진출지배 등이죠, 이런 부분이. 역시 개별적인 검토를 쌓아간 다음에 이른바 체계적인 개념이 생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벗어날 것 같은데요, 오전의 《일본서기》에 대해서는 백제와 왜국, 일본과의 관계가 중심이었고,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 가야와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김현구 선생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 4, 5, 6세기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는 역시 가야사연구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가야사가 한일관계사의 경첩이라고 할까요,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경첩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고학의 연구 성과, 즉 가야지역, 경상남도지역의 발굴조사는 아주 활발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가야지역의 독자적인 역사자료가 나옵니다. 문자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王이라는 글자, 大王이라든가 할 때의 漢字를 가진 토기가 나오거나, 7세기, 6세기 7세기가 되면 이번에는 목간이 나오거나. 그래서 백제사, 신라사와 달리 가야사에는 참고가 될 만한 통사가 없다고 할까, 체계가 유감스럽게도 없어서, 가야사의 김태식 선생님은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스스로의 가야사 체계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자신은 그렇지 못해서, 역시 가야사, 다양한 요소들을 고대한일관계를 생각할 때의 가야사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골격이라고 할까요, 움직이지 않은 체계, 그런 것을 제 자신이 빨리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반성점입니다.

김현구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도 한번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결국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사토 선생님이 개념의 문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전체라고 하는 시각, 또는 새로운 자료를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이 개념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였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야사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할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의 방법론에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의 시각이랄까 시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EU를 비롯해서 세계가 지역적인 협력,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도 협력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 두 나라가 전부 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중요한 국가로 이미 부각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구회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왜곡문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고구려사의 문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문제, 그것도 결국은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처럼 역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현재의 시각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 자기를 합리 시키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현재의 동아시아 세계를 과거의 책봉체제를 가지고 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본의 소위 한반도 경영 문제라든가, 교과서 문제는 결국 이 시모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국주의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소제국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역사를 보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동아시아 세계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만난 것도 그런 목표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고대 역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개념의 문제, 한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넣어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개념의 문제는, 그 내용이 확실해져야지 그 문제가 정해질 수 있는데,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개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념을 통일해 가지고 내용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서 나왔던 지배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말은 당시 가야지역에서 활약했던 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전부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했던 왜의 실체를 밝혀나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 관계를 넣어서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관계도, 연구해 나감에 따라서 삼국관계, 사국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전체와 동시에 한일관계라고 하는 면도 소홀히 해선 안 되지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國 南部에서 활동한 倭를 어떻게 이해할까

濱田 : 하나만 김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될까요? 지금 “한국 남부에서 활동한 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참고로 김 선생님은 長年の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현구 : 그 문제를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연구회가 없었어도 됐을 테지만,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왜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같은 시대라고 해도 성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 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교류들을 우리가 검토해 나가면서 또 그 틀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본서기》의, 또는 일본 학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주장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남부를 경영이랄까, 지배한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왜들의 존재를 주 대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왜를 얘기하는 경우에, 저는 4세기의 왜나 5세기의 왜, 4세기 광개토대왕 비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왜, 《일본서기》에 나오는 왜, 또는 5세기에 나오는 왜나 6세기에 나오는 《일본서기》의 왜는 같은 성격으로, 크게 보면 성격이 다

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신묘년 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404년 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왜냐 《일본서기》에 신공기 49년조에 나오는 왜냐, 잘 검토해 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왜는 5세기의 이례테면 紀生 曠의 난이나, 또 6세기의 소위 - 하마다 선생님이나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조금 위축돼 있습니다만 - 6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고 하는 기사들도 잘 검토해 보면 성격은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백제의 요청에 의해서 백제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선진문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이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양국 왕실간의 혈연적인 교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교류도 곁들여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마다 선생님, 그걸로 답이 됐습니까?

濱田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견해는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네.

김현구 : 내가 알기로는, 단편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만, 전체적으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체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石井 :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생님, 괜찮습니까? 점점 시간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사토씨의 이 제안을 기본으로 삼아 생각해 보면, 사토씨가 열거해 주신 3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식 선생님이 스스로의 반성점으로써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이 역사연구가 세분화, 혹은 정치화된 단계에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 지금까지 18번에 걸쳐서 양국의 이와 같은 모임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 역시 커다란 진보였다고 제 자신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이 느껴지는 점은, 오늘 오전에도 발언을 드렸습니만,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기본적인 사료, 즉 문헌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고고학의 사료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본다, 그러한 공통적인 토대 만들기, 의논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재료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자료로 말하자면 영산강 유

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는 누구인지, 매장된 사람은 누구인지 하는 점에서 자주 왜계 백제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피장자의 문제 하나를 가져도 유물, 혹은 유적, 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이와 같은 것을 더 넓게 데이터를 공개한다, 그런 것을 촉진시키는 것도 이 위원회의 하나의 역할이 아니었나,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객관적인 의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할까, 그 부분을 제일 목표에 두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신공 49년, 47년이었나요, 그것이 대체 타당한지 아닌지 하는 의논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시켜서 객관적인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이 위원회로서 아니면 제 개인으로서는 최대의 목표로 삼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서, 제 자신도 좀 사고회로가 지금 둔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결국 기본사료에 돌아간다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 이것은 문헌뿐만이 아니라 고고학도 포함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시이 선생님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한일관계사의 큰 틀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든가, 또는 그게 아니라 백제가 그것을 주도한 것이고 왜는 부수적이었던가,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인 가야지역에 대한 것은 論外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제가 가야에 대한 문헌이나 또 고고학 자료나 그런 걸 통해서 생각되는 면에는 가야지역에 백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미쳤다든가, 아니면 왜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다든가 하는, 그러한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3세기부터 4세기, 그리고 5세기, 6세기에 걸쳐서 가야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고고학 자료의 상당수가 일본의 규슈지역과 관련된 고고학 자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한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가야지역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연구, 또 규슈지역의 유적이나 유물 상황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연구,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중국 선생님, 한 말씀도 안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노중국 : 지금 저희들은 아마, 오늘이 공식적으로 좌담회 자체는 거의 끝이라 싶습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두고 한일관계 학자들이 2년 넘게 이렇게 만난 것은 아마 우리 학회, 연구자 모임에서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이

런 모임이 있었다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큼니다만, 그러나 모임의 시발점 자체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제가 촉발제가 되어서 이런 모임이 가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구회를 진행해 오면서 한일 양국의 학자들 사이에 이런 학술적인 모임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될 때, 상대적으로 교과서 문제도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뤄봐야 될 사항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모임에서 다룬 건 4세기에서 6세기의 것인데, 사실 그 앞에 1세기, 2세기, 3세기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다 선생님이 한 장에서 다룬 부분들, 이것은 한 장으로 다뤄져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보다 더 공동으로 다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고조선, 군현 문제, 즉 낙랑, 고조선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토 선생님의 주제에서 불교문제라든가, 한자 문화의 수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논문의 한 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자체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뒤편에 사진을 하나 첨부한 게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나오는 바, 한반도에서 왜로 가는 방향은 대개 남으로, 남으로, 동남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지도를 염두에 둘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行基圖에 의한다면 어느 정도 그 당시 지리관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관에 의한다면 《宋書》倭傳에 나오는 ‘渡平海北’, 즉 바다를 건너서 海北을 평정했다 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도 새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세기까지, 행기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반의 인물인데, 이런 식의 지리관을 가졌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1세기에서 3세기의 문제들도 한번 이런 공동 연구에서 좀 다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사토 선생님.

佐藤 : 한가지만. 지금 노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行基圖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행기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중세인가요, 중세 중반 이후에 그려진 것이라서 고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고대 지리감각을 연구하는 것은, 일본인은, 일본의 연구자는 지리학자까지 포함해서 없습니다. 안 합니다. 웬지 이 그림을 行基

圖라고 명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행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고대의 행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지금 노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저는 그 앞의 김태식 선생님의 의견에 아주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 모임에서 磐井의 전투를 보고했을 때 九州의 지방호족의 예를 들면서, 구주지방에 있어서의 국가형성으로의 발걸음을 논술했습니다. 일본열도의 고대사는 왜의 대왕의 역사로 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령국가의 시대라도 울령국가가 지배한 영역은 북동부의 일부까지였고, 남쪽도 최대한 九州의 남단까지라서, 일본열도, 오늘날의 근대의 일본국의 영역이 그대로 고대에도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열도의 고대사를 생각할 때는 각각 지역의 역사도, 대왕정권에 의한 국가형성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각각 지역의 역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문헌사료는 국가가 편찬한 것이라서, 아무래도 국가 중심, 일본열도에서 말하자면 近畿地方을 중심으로 한 역사상이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 지역에서도 고대사가 있었고, 중앙국가의 역사와 각 지역의 역사를 둘 다 배운 후에 각각을 총합해서 일본열도 전체의 역사에 대해 지리를 매기고 싶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구주의 지방호족인 이와이의 움직임 등은, 가야와도 그렇습니다만,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에서의 외교사절을 자기에게 불렀다는 기제가 《일본서기》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악의를 가지면서 신라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이와이가 뇌물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일본열도의 구주지방에 있어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와이는 가야와도 교류했고, 김태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야와도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신라와도 교류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사절도 대왕에게는 못 가게 하고 자기에게 불러들이면서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의 고대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저는 고대에 있어서의 중국의 중화사상, 혹은 아마 일본 울령국가가 가지고 있던 소중화사상을 상대화하는, 객관적으로 다시 고찰할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구 선생님이 지적하신 EU라든가, 여러 국가, 오늘날의 국가를 초월한 지역연합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오늘의 초점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날의 국가가 아니라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하나요, 국가가 아니라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현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대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가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호족과 민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는 검토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古代의 地理感覺과 地圖

노중국 : 사토 선생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현재 이것이 중세에 나온 지도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지도는 한 몇 세기에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佐藤 : 고대의 지도는 莊園의 지도이고, 전국지도는 고대에는 없습니다.

노중국 : 장원, 장원. 지방 지도는 있고, 이보다...

濱田 : 그러니까 그 신숙주의 지도가 오래된 편이죠.

石井 : 해동제국기에 나와 있는.

佐藤 : 신숙주.

濱田 : 조선왕조시대, 해동제국기에 나오는 일본 지도가 현재는 제일 빨라요.

노중국 : 현재, 일본 전체지도로 이보다 빠른 것은? 행기도로 알려진 것보다?

佐藤 : 저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요. 행기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저것은 시대가.

노중국 : 행기도는 몇 세기에 대략 ... 중세 16세기? 몇 세기?

石井 : 행기도? 鎌倉부터 室町이네요. 빨라도 鎌倉.

노중국 : 가마쿠라. 14세기?

石井 : 아니오, 더 내려갑니다.

노중국 : 왜냐하면 그 뒤에 지도, 28페이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1402년경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지도에서 일본

의 지도 모습하고, 앞의 지도 모습은 상당히 거의 같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중세까지도 일본의 모습을 남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동과 서로 일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돼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행기도는 행기가 그리지 않은 것일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세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모습을 남북으로 봤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佐藤 : 단 일본 고대에서는 四方의 나라라고 해서, 역시 동쪽, 東山道, 東海道라는 말이 있어서, 울령국가는 예를 들어 지금의 관동지방을 역시 동쪽으로 인식해서, 구주를 西海道라고 불렀습니다, 울령국가는. 그러니까 역시 8세기 울령국가는, 지금 관동지방은 동쪽, 구주는 서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령국가는 北陸道, 북쪽을 역시 北陸地方으로 보고, 남쪽은 四國과 和歌山, 현재 和歌山縣을 南海道, 남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세기의 울령국가의 방위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서기》에는 역시 四方將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만, 8세기 《일본서기》의 생각에서는 역시 동서남북을 울령국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5세기의, 《宋書》에 보이는 平西將軍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행기도라고 불리는 그림을 보시면 수도가 山城에 있습니다. 행기가 산 시대의 수도는 平城京, 大和에 있었습니다. 奈良縣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石井 : 동서남북이 써 있네요, 이 지도에. 동서남북. 이것이 북쪽이라고 써 있네요.

노중국 : 표시는 없습시다만 이게 서술돼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서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

石井 : 그러니까 이것을 가로로 보면 서쪽에 중국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북쪽으로, 여기를 북쪽으로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중국 : 그게 28쪽에 지도하고, 24페이지에 거기 보면 ... 조선 세종실록에 ...

石井 : 세종실록이네요, 세종실록 지리지.

노중국 : 《태종실록》에 보면, 혼일강리국도지도를 만들기 전에 일본에서 지도를 가져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지도를 지금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대략 행기도로 알려진 이 지도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쪽의 지도하고 연관시켜 보면, 행기도도 남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濱田 : 노중국 선생님은 자신의 논문과의 관계상 지금 행기도에 대해서 사토 선생님에게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좌담회의 테마와 다르다고, 극히 개별적인, 이것도 좌담회 녹음에는 필기에는 신지 않은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단 노중국 선생님께 질문은 아닙니다만, 노중국 선생님은 이것을 가지고 《송서》의 海北九十五國, 이것은 북구주라고 제시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해북 95국은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28페이지의 지도가 그렇게 된다고요. 단 일본의 바다 북쪽에는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노중국 : 아니, 한반도가 아니고 규슈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면 세토 나िका이로 올라가서 규슈를 정복한 것으로 되는 거지요.

濱田 : 아니, 이 지도는 ...

김현구 :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볼 때, 이걸 노선생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세기에는 울령국이였었고, 사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을 여덟 개로 나누면서 규슈를 西海道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규슈를 북으로, 이 지도를 자꾸 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걸 자꾸 논의하면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노중국 : 아니 논의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그걸 지도로 나타낼 땐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일본 중세에서도 현재는 행기도보다도, 앞에 내가 제시한 이 지도 보다도 빨리 나온 지도는 현재는, 전체 지도는 없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김현구 : 그런 걸 떠나서 600년대에 규슈를 서해도라고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濱田 : 동해도, 서해도, 남해도 해서 ...

石井 : 邪馬臺國 문제에서는 항상 이 세계관이 문제가 됩니다. 야마타이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위지》 왜인전을 해석할 때. 중국인의 지리인식으로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지도의 바탕이 된 것도 아마 중국 사람이 그린 지도가 아니었을까요.

佐藤 : 저어, 일본 중세의 행기도에서는 위에 큰 육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아닌가요.

石井 : 혹은 연해주가 아닐까. 동해를 사이에 끼서.

노중국 :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길 꺼낸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동 연구에서 한다면 1~3세기의 문제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 때 다룬다면, 결국은 또, 《삼국지》 위지 한전이나 왜전도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할 때 평소에 제가 늘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대마도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키도를 건너서 규슈까지 온 중국 군현의 사신이 그 다음에 야마타이국까지 갈 때, 계속 남으로 남으로 남으로 또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다는 것, 이게 현재 일본 지도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행기도니, 또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이런 것도 상당히 참조해서 지리관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共同研究의 繼續에 대하여

김태식 : 이제 그 문제는 그만 하고, 이제 우리 좌담회를 끝내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을 쭉 모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일 공동, 고대 한일관계사의 공동연구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가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일본 측에서는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이런 공동연구의 지속 필요성을 지원위원회에다 건의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지, 그걸 여쭙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쪽에서도 말하자면, 지원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구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1분과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1분과 연구위원회에서 이러한 공동연구 위원회가 앞으로 지속될 것을 연구지원위원회에 공동으로 건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佐藤 :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연구의 자리가, 공동연구의 자리는 앞으로도, 그, 이번 공동연구는 아직 입구의 단계이며,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지원위원회 아래에 있는 공동위원회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좀 더 모습을 바꿔서, 혹은 멤버를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공동연구의 자리가 피겨가면, 그것은 이번처럼 지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 분들, 일본의 연구자 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연구를 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 자체가 계속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단 김태식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지 못했는데요, 어떨까 좀 모습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양 선생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저도 생각하자고.

濱田 : 한국에는 한일관계사연구회라는 게 있어서, 그 논문집이 이제 20호 가까이 나왔습시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관계사의 관계논문을 연구하는 연구단체이며, 또한 그 연구사업입니다. 일본에서는 한일관계사에 집중하여 모이는 학회는 없습시다. 또한 그런 연구 잡지도 없습시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회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할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형태를 바꿔서, 모처럼 나온 이 성과를 폭넓게 받아들인다든가, 혹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보고서가 한일 양국에서 나오면 다양한 반향이 있을 겁니다. 찬반양론이 있고, 엄격히 비판을 받겠지만.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모습을 바꾼 한일의 역사학회의 교류, 교류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일관계를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태식 선생님과 김현구 선생님께 오전에 질문을, 아니, 숙제를 받았습시다만, 멀지 않아 한일관계의 통사를 쓰려고 합니다. 제 연구, 혹은 제가 구성하는 고대 한일관계의 통사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중국 : 일본 쪽에서는 지원위원회가 관계한 이런 모임은 거의 불가능한지요?

濱田 :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한국측에서는 제1부회, 제2부회, 제3부회라는 방향에서 얘기가 진전되고 있네요.

김태식 : 가능하면 한번 지원위원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濱田 : 이거, 김태식 선생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 선생님들도?

김태식 : 명확한 결의는 없었지만 대개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중국 : 한국 쪽은 조금 그러한 입장입니다.

石井 :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눈앞의 마감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단 이제야 공동연구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제 개인으로써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계속하는 것이, 계속할 수 있으면 제 자신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지원위원회 스타일이 좋은지 어떤지, 이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濱田 : 단 지금 일본과 한국에서는 한일역사가회의인가요, 그런 게 있지요. 한일역사가회의.

노중국 : 역사가회의?

김태식 : 아, 역사가회의.

濱田 : 이것은 개별문제를 검토하는 회의가 아니라 역사학의 방향성을 누가 강연해서 출석자가 여러 가지 질의 토론하는, 네, 그렇습니다, 역사이론이라든가, 혹은 유럽의 새로운 역사학을 한·일에 소개한다든가,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일관계사를 테마로 한 무언가의 공동연구, 혹은 공동회의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다, 어떤 멤버가 들어가는가, 구성을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는 일단 두고, 예를 들어 이 공동연구위원회 발표의 계승적인 형식으로 무언가 구성해서 연구하는 자리는 있어도 좋다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佐藤 : 저도 지금 연구회가 그대로 계속 되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공동연구의 성과는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달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와 같은 공동연구의 자리가 금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위원회에 관계하는 혹은 새로운 공동연구의 자리의 준비가 어떻게 될 건지는 차치하고, 저는 그것과는 따로, 모처럼 이렇게 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사이 좋게 가끔 만나서 공동연구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리를 갖고 싶다고는 생각합니다.

김태식 :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끝내기에 앞서서, 앞으로 공동연구가, 지원위원회가 앞으로 제 2기에 만약에, 제 2기에 공동연구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공동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다음 대마도 회의에서 하기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佐藤 : 다른 부회의, 분과회의 의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찬성.

김태식 : 아,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구체적인 공동연구가 앞으로 만약에 더 지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 그런 것을 다음 20차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제 장시간 힘드니까, 또 일본 선생님들 컨디션도 안 좋고 하셔서, 오늘은 회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수)